

안동교구 공소탐방

“2022년 1월~2025년 10월 **희곡** 연재”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안계본당 쌍호공소

신심실 (信心室)

Q: 이 방은 어떤곳인가요?

어르신1: 옛날에는 일 년에 봄, 가을 두 번 신부님이 오시면 100명 정도의 신자가 미사 하고 성사도 봐야 하니 신부님이 여기서 하룻밤, 이틀 밤 주무셨어. 미사 때는 마루에도, 마당에도 앉아서 했지. 신부님은 회장님댁에서 식사하셨어. 회장댁이 애 많이 잡았지. 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레지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해.



역사

Q: 공소 출신이세요?

어르신2: 내가 3대째야. 증조부모님이 학가산에서 왔어. 나는 여기서 세례 받았어. 옛날에는 3일 만에 받기도 했어. 공소회장이 세례를 주고, 신부님이 보례를 줬어. 본당이 12번이나 바뀌었어. 옛날에는 김천, 안동, 예천, 다인으로 성당을 다녔어.

Q: 총무님은 성당 다니신 지 오래 되셨나요?

허총무님: 4대째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허원식 원선시오이신데 증조할머니께서 병인박해를 피하려고 대구에서 왔대요. 여기와서 웅기 굽고 전교도 하고 식량도 구하고 사셨다고. 저 위에 집터가 웅기 집터예요. 2003년에 쌍호공소 '신앙의 뿌리 200주년'을 기념했어요.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살았다는 기록이 있지요. 옛날에, 이 마을에 가구 수가 50가구 정도였어요. 외지에서 박해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때는 교통이 없어서 낙동강 나룻배 통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웅기 구워서 삶어지고 쌀, 보리, 좁쌀 등으로 물물교환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전교도 했지요.

미사

Q: 계속 여기서 미사하세요?

어르신3: 한 달에 두 번은 이곳에서 공소예절하고 나머지는 안계본당에 가서 해요. 보통 30명 나오는데 거의 노인들이다 보니 작년에 두 분 돌아가셨고 현재 노환으로 인해 못 나오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자꾸 줄지요.

농민회 활동

Q : 쌍호공소는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농민회 활동을 소신을 가지고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를 40년 넘게 유지해 가시잖아요.

형제님 : 그냥 명분만 유지하지요. 발전하는 게 없어요. 000 자매가 62세인데 젊은층이고 총무님도 69세로 젊은층이에요. 농사만 잘지으면 되는데... (허허)서울에 양천성당과 직거래하고 몇 군데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어요. 추기경님 계실 때부터 자매결연했어요. 제14회 가톨릭 환경상도 시상했지요.



성소 못자리

Q : 이곳은 성소 못자리네요.

어르신4 : 200주년 기념할 당시 신부님이 14명, 사순시기 십자가의길 수도자가 15명이 나섰어요. 저희 권혁주 주교님 쌍호공소 출신이시죠.

의성 쌍호리는 청호와 도호라는 두 마을이 합쳐져서 쌍호라는 이름이 생겼다. 또한 '점마을' 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천주교 박해시대 신자들이 이곳으로 피난 와서 웅기를 구워 팔아서 생긴 이름이다. 기록에 의하면 쌍호에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1801년 신유 박해 이후이며 1890년대부터 신부님들이 미사와 성사를 주셨다는 기록이 있다.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쌍호분회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 왔다. 이는 가을에 추수한 후 생기는 작물의 잔재를 가축에게 먹이는 '경축 순환 농법'인데 이 방법은 땅과 생물의 유기적 순환을 촉진하고 생명력을 되살리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다. 이런 노력들이 벌써 44년째이며 지난 5월에는 농민회 쌍호분회 500차 월례회를 가졌다. 공소에는 현재 연로하신 어르신이 많으시지만 200년 이상의 신앙의 뿌리를 가진 나무로 아직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문경본당 당포공소

새로운 시작

Q: 이곳 당포공소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손용자 방지가 어르신 : 제가 60여년 전인 19살에 이곳으로 시집왔어요. 시댁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1926년에 경북 영천에 살던 4형제가 이곳으로 이사왔다고 하셨어요. 박기일 가별(가브리엘)이 형제중 맏이고, 저희 증조할아버님이 둘째셨는데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의 당포로 이사를 왔고 가족끼리 공소 예절을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고 들었어요.

역사

Q: 영천에서 이곳으로 오신 이유는요?

손용자 방지가 어르신 : 시어른댁이 밀양 박씨셨는데 문중에서 제사 지내지 않고 천주교 믿는다고 박해를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피신 오신 거죠.

Q: 당시 이곳에서의 신앙 생활은 어떠셨대요?

손용자 방지가 어르신 : 처음 이곳에 오신 증조어르신이 신앙으로는 4대째예요. 우리 증조할아버님이 공소회장을 하시다가 할아버님, 아버님, 남편에 이르기까지 공소회장을 하셨대요. 저희 손자 바오로가 올해 19살인데, 애가 9대예요. 1926년 공소예절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문경성당이 아직 없어서 통통한 독일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와 성사를 주셨고 큰 첨례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공평본당(현 점촌동본당)이나 함창본당으로 미사와 성사를 보러 다니셨대요.

Q: 마을 이름이 '당포'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르신2 : 마을 중간에는 서낭당이 있고 앞에는 냇가가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공소

Q: 계속 여기서 사셨나요?

어르신3 : 아니요. 저는 어릴 때 이곳 평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해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온지 5년 됐어요. 제가 5-6살때 엄마 따라 공소에 갔었는데 외국 신부님이 오셔서 우유랑 밀가루를 주셨어요. 벌써 65년전의 일이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공소를 찾아 왔는데,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갔어요. 묵주기도를 하는데 당시 저는 서울의 큰 성당에만 있다가 작은 공소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곳에도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는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빛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작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당포공소는 문경 본당에서 4km 거리에 있다.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곳에 신앙의 터전이 마련된 것은 1926년 경북 영천에 살던 박기일 가별(가브리엘)이 밀양 박씨 문중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사를 오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박씨의 4형제가 중심이 되어 가정에서부터 공소예절을 하게 되었고 차츰 예비자가 생겨서 작은 민가 한 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교우 가정이 20여 세대가 되자 공소예절을 하기가 어려워 문경 본당에서 지금의 공소 부지를 마련해 주었고, 모든 신자들이 자재, 인력, 기도, 정성을 모아 1972년에 축성식을 하였다. 1997년에 지금의 조립식 건물로 재건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026년, 당포공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서문동본당 서만공소

Q : 안녕하세요? 서만공소 식구가 단출하네요.

정응시 루카 어르신 : 옛날에는 공소가 감당 못할 정도로 신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기도 하고 노령화로 신자들이 많이 없어요. 오랫동안 안 3명만 공소예절을 해왔지요.

Q : 오늘은 6명이네요.

루카 어르신 : 신자들이 너무 없어서 서문동에 부임하시는 신부님들이 공소 존폐를 고민할 정도였는데 도시에서 2쌍의 부부가 귀촌을 해왔죠. 복덩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공소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4년 전에 귀촌한 홍준근 사비노 형제가 공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 요즘 미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르신 2 : 요즘 서문동 본당에 보좌신부님이 안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본당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하십니다. 그나마도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한달에 한번씩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갈멜 여자 수도원의 새벽미사에 참석합니다. 공소회장님 차로 공소 식구 모두 갑니다.

Q : 공소가 아담하고 정겹네요.

어르신 3 : 네 저희 공소는 오래 전에는 80여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거의 예비자로 나올 정도로 신자가 많았어요. 1963년도에 상주 서문동 본당의 전교회장이었던 박아오스딩 형제가 처가가 있던 이곳에 와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김계조의 아들집 사랑방에서 하다가 김계조 형제가 터를 기증하고 초가집을 지어 명석 깔고 공소예절을 했습니다. 1965년에 함창성당 기술자 둘이 와서 건축을 하고 공소신자 4명이 함께 봉사하며 흙벽돌을 찍어, 팔려서 외벽을 세웠습니다. 다른 신자들도 산에서 돌맹이를 주워와 정성껏 공소를 지었습니다.

Q : 십자가의 길 그림이 특이하네요.

루카 어르신 : 처음 이곳에 독일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그림을 독일에서 가져오셨어요. 오래되어 종이가 누래져서 고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죠. 독일 신부님 계실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 신부님이 생기니 먹고살려고 밖으로 나가서 신자가 많이 줄었어요.

Q: 한국 신부님이 생기니 왜
신자가 줄었나요?

루카 어르신 : 독일 신부님이 계
셨을 때는 해외 원조가 많아서
공소에 오면 많이 얻을 수 있었
는데 한국 신부님이 오시니 원
조가 끊겼기 때문이죠.



사비노 공소회장 : 저는 4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와서 미사 가려고 인
터넷으로 가장 가까운 성당을 찾
았는데 이곳 공소가 서만 교회로 나와서 개신교회인줄 알았습니다. 집이 바로
옆인데도 몰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공소가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어
르신들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공소 소속의 신자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냉담 중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미사 드리고 싶는데 어렵
네요.

루카 어르신 : 신자가 3명 남았을 때는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서만공소가 이 동네
에서는 큰 건물인데 신자들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고 하느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
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공소회장네와 다른 부부가 이곳으로 귀촌해왔죠. 하느님
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덩이들이 오셨습니다. (하하) 소박하지만 저
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주군 내서면에 자리한 서만공소는 1956년에 설립되었다. 교통이 불편하여 어렵
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963년 서문동 본당 전교회장이던 박계학 아오스딩 형제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구만리 김계조의 사랑방에서 파
견된 전교사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공소예절을 하다가 김계조가 기증한 터에 초가집
을 짓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공소예절을 했다. 1965년에 함창본당 신자 기술자와
본당 신자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건물을 올리고, 공소를 완성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
을 이어오고 있다.



청송본당 도평공소

1966년 건립된 눌인공소는 도평공소의 전신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눌인공소는 청송본당 주임 신부였던 파란 눈의 사제(프랑스 국적) 박로제 신부님과 추봉악 말지나 자매님의 헌신으로 인해 세워질 수 있었다.

추 말지나 자매님은 일본에서 영세를 받고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였다. 그 무렵 청송에는 성당이 없어 의성까지 오가야 했다. 교통편조차 여의치 않아 의성 성당까지 걸어서 다녀오려면 거의 하루가 걸렸다. 아이를 업고 걸리고 하여 돌아오는 길에 허기가 지면 싸가지고 간 보리 주먹밥을 먹었는데 여름에는 쉬어 있기 일쑤였다. 그러면 냇가로 내려가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 물기를 짜고 먹었다고 한다. 겨울에는 내린 눈에 발이 푹푹 빠져서 여간 고역이 아니었지만 어김없이 미사에 참여하러 다녔다. 그러한 얘기를 전해들은 주교님께서 현동면 눌인 3리에 공소 설립을 허가하셨다. 이미 1년 전에 청송성당이 지어졌으나 현동에서는 만나질 거리에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자들의 불편이 컸다.

박로제 신부님께서 열의를 갖고 공소 건립에 나섰다. 추 말지나 자매님은 사제를 털어 기와를 봉헌했다. 자매님은 밭일을 하다가도 비가 오면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공소의 무너진 축대를 쌓으러 달려갔다. 성탄절에는 자정이 되면 가마솥에 불을 때서 떡국을 끓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사비로 막걸리를 사서 동네분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남뿔불을 켜놓고 공소예절을 바치던 때였으나 전교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례받는 신자들이 한 번에 열 명, 스무 명이 될 때도

있었다. 좁은 방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해 예비자들은 바깥에 서서 미사를 봉헌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공소 설립 50주년 기념미사 중 추 말지나 어르신 감사패 수여

10년이 지나 공소 건물이 허물어져 내렸다. 눌인 2리에 땅을 구입하고 새 집을 지어 이전했다. 할머니들이 주머니를 털어 보태고 자매님들은 공소 텃밭에 검은콩을 심어 팔았다. 신자들이 벽돌과 슬레이트로 손수 지은 눌인 2리 공소에서는 선교사님이 잠시 거주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미사 봉헌이 이루어졌다. 건물이 낡아 신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선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눌인 2리는 현동의 외곽에 있었다.



주교님의 공소 사목 방문 때 현동면 소재지로 공소를 옮기자는 건의를 드렸다. 차호철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 청송본당 주임신부로 있을 때였다. 새로운 공소 신축을 위해 신자들은 전국 성당을 찾아다니며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신부님은 대구와 부산교구의 여러 본당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2008년 지금의 자리에 눌인공소라는 이름을 개칭하여 도평공소가 세워지게 되었다. 도평공소는 노래산 성지 순교자들이 을해박해 때 경주 감영으로 끌려가던 길에 자리해 있어 그 의미 또한 크다. 2016년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소 식구들의 안부를 살피는 추 말지나 자매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도평 공소 5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현재 도평공소는 밀알회, 요셉회, 안나회, 선종회, 성가대, 사목회 등 6개의 봉사단체와 4개의 브레시디움을 가지고 있으며 4개 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평공소 교우들은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꾸며 기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 도평공소 박월수 효주아네스)



휴천동본당 부석공소

Q : 부석공소에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정건희 우술라 : 제가 1973년에 이곳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소가 없어서 신자 집에서 공소예절을 했습니다. 당시 어르신들이 열두 분 정도 계셨는데 당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소 하나 남겨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Q : 어떤 노력들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절미운동을 하셨대요.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을 따로 모아 판 금액을 봉헌하셨고, 남의 밭에 가서 추수 후 남은 이삭을 주워 팔기도 하고 봉투 붙이는 부업을 해서 모은 돈을 봉헌하셨대요. 안타깝지만 노심초사 공소 설립을 위해 애쓰셨던 어르신들은 공소를 못 보시고 돌아가셨대요. 그 뒤를 저희들이 이어 받았습니다. 당시 돈 70만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Q : 당시에 풍기본당 소속이셨죠?

네. 안덕화 베드로 신부님께서 한 달에 두 번 저희 집에 오셔서 미사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두봉 주교님을 두 번 찾아뵙고 공소 지을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려서, 주교님께서 소속을 휴천동으로 옮겨주셨어요. 후원금을 모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거죠. 드디어 공소 지을 땅을 구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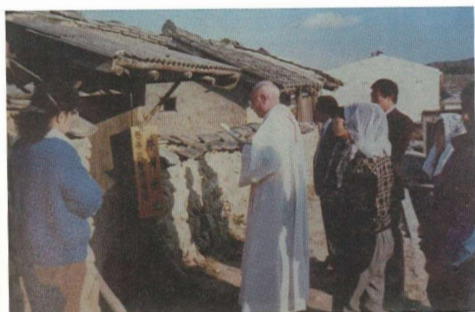
땅만 보고 구입한 대지에 쓰러져가는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았었습니다. 안신부님께서 오시면 미사는 집안에서 하지 않으시고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했습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겁이 나셨어요.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니 교우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휴천동 본당에서도 성심껏 도와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소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나 : 저는 외국인인 안덕화 신부님께서 기와집 벽지가 폴렁폴렁할 때 "귀신나올 것 같아 무서워." 하시면서 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웃음)

1대 회장님 : 88년도에 이 땅을 샀고 91년도에 휴천동으로 관할이 옮겨지고 92년 지금의 공소를 신축하여 5월 17일에 박석희 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지금은 30년 정도 되니 건물이 노후되어 지붕에 비가 새니다.

Q : 요즘 공소 신자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 5년 전까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이사왔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치명자의 모후' 라는 레지오도 있었는데 2년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리아 회합을 하기 위해 본당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농촌지역이라 일손도 바쁘고, 공소 인원수가 적으니 꾸리아 한다고 본당 나가면 전례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사 후에 레지오 모임을 해야 하는데 레지오 한다고 회합실에 모여 있으면 어르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선교 활동 열심히 해서, 지금 휴천동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 두명이 교리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Q : 미사 때 오카리나 반주를 하시는 게 이색적이고 좋았습니다.

반주자 : 사실 저희들 배운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성가를 부를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성가 반주 틀어놓고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것이 전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반주하고 있습니다.

1959년 8월 24일에 부석공소에서 17명이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영주본당 세례대장에 남아 있다. 1960년대 구호품 배급으로 밀가루 신자가 많았지만 구호품이 떨어지자 다 떠나가고 5-6명만 남아서 공소에 절을 이어갔다. 귀농 인구 증가로 현재 20여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옥산본당 왕실공소

Q : 이곳이 많이 출습니다.

박정숙 안젤라 : 이곳이 김천과 맞닿는 안동교구 서남쪽 끝입니다. 겨울은 길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합니다.

Q : 왕실공소 관할 본당이 몇 번 바뀌었지요?

채흥모 베드로 : 안동교구가 생기기 전인 1946년에는 김천 황금동 성당 관할이었던 수봉공소로 다녔다가 그 이후에 서문동으로, 63년에는 남성동으로 옮겼습니다. 왕실공소의 모체인 수봉공소는 화령 본당 소속으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Q : 이 자리가 처음부터 공소 자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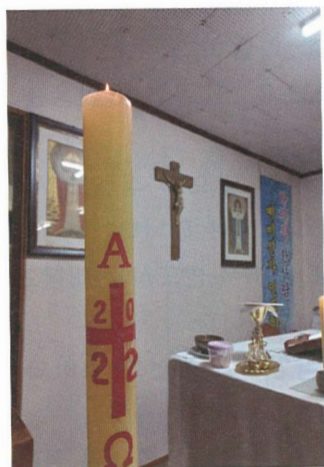
1955년도 왕실공소가 세워질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자택을 임시 공소로 사용하다가 54년도부터 신자가 늘어나 수용할 데가 없어서 경엘리시오 신부님 계실 때 이곳을 지었습니다. 당시 80명 정도의 예비신자가 있었지요. 59년에 공소를 지어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18평 작지만 공소 짓느라고 모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공소 지을 당시 동네 주민은 100여 호 넘었는데 지금은 50여 호 정도입니다. 또 전에는 개신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생겨 신자가 나뉘는 셈입니다.

박안젤라 : 저는 친정이 이곳인데 왜관하고 청리 경계에 웅기 굽던 곳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어른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 시댁은 여기 살다가 박해 때 왕실로 갔다."고 하시며 모두 천주교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채베드로 : 문경 산양에 살던 최씨 문중의 몇 분이 박해 때문에 울리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웅기를 구워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손자 3형제가 왕실로 와서 살며 어려운 가정도 딛고, 희생하며 좋은 신자상을 보였기에 처음에는 천주교를 거부하는 분들도 차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신자가 많이 불어나 공소가 되고 59년에 성전을 짓고 남성동 본당 관할로 32년간 있다가 94년에 옥산공소가 본당이 되면서 관할이 바뀌었죠. 당시 공소 신자는 25명이었는데 지금은 5가구 7명입니다.

Q : 왕실공소의 '왕' ㅈ 이 한자로 왕성할 왕입니다.

왕성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규모로는 작아졌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은 우리 안에 왕성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959년 공소 지을 당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었다. 서까래 등 큰 건축 자재를 옮길 때 동네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소와 사람의 힘으로 옮겼다. 당시 자재를 운반하는 차가 없어 채마Martin의 외가인 모동 공소 관할 신흥리에 목탄을 구워 운반하던 짐차를 부탁했었다. 한참 자재를 운반하던 도중 차가 움직이지 않고, 소나기까지 내리고... 산에서 교대로 밥을 먹어가며 자재를 지키고 운반하는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어진 왕실공소는 그해 가을 축성식을 통해 주님께 봉헌되었다.



주교좌 목성동본당 와룡공소

Q: 목성동본당의 전신인 안동읍 공소가 작년에 100주년 기념했지요?

신자: 저희는 2013년에 100주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110년입니다.

Q: 원래 예안공소가 있었죠?

신자: 네, 예안공소가 안동댐으로 수몰되어 없어질 때 이것을 뜯어서 지베드로 사랑채 한칸 짓고 끝방에 모여서 예절하다가 지금의 공소집 지었습니다.

김홍명 스텔라: 저희 시어머님께서 권분금 맡가리다이고 저희 신랑이 구정회 프란치스코인데, 공소 땅을 시아버지가 기증하셨습니다. 수몰된 예안공소 보상비와 교구 지원금, 당시 동부동 본당의 보조금으로 공소를 지어 1976년 10월 20일에 두봉주교님께서 축성미사를 해주셨습니다.

Q: 밖에 성모상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네요.

김홍명 스텔라: 두봉 주교님께서 공소를 교회처럼 짓지말고 마을 회관처럼 지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동네 집처럼 친근하게요.

Q: 이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자: 어머니가 딸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니, 딸들이 엄마 옆으로 모여들어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Q: 어르신, 딸들이 돈받고 나 몰라라 하면 어찌실려고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김계월 이사벨라: 정부에서 줘요.

Q: 딸과 사위는 어떠세요?

딸 마리아: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오빠랑 10명의 딸이 있습니다. 집 지으라고 땅을 나눠주시니 신랑 퇴직해서 집 지어서 엄마 곁에 왔습니다. 지금 엄마 곁에는 큰언니를 비롯해 딸 셋과 사촌언니 둘이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사도 짓고 신앙생활도 함께하니 저희도 좋고, 어머니도 좋아하십니다.

사위 요셉: 저희가 결혼할 즈음 공소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1년 전에 이곳에 와서 자주 공소에 오니 좋습니다.



교육부장 : 저희 목성동 본당 와룡공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공소는 따로 공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당의 10구역에 소속됩니다. 본당 안의 10구역 신자들과 함께 공소 신자들이 반모임을 합니다. 공소와 본당의 구역 반이 합쳐진 독특한 형태입니다. 공소에서 반모임뿐만 아니라 소식 나눔과 음식, 옷놀이 등 풍성한 나눔도 하곤 했습니다.

와룡공소는 구정희 프란치스코의 어머니 권분금 말가리다가 1913년 10월5일경 보쌈 형식으로 시집을 오게되면서 시작되어 1939년도에는 신자수가 90여 명이나 되었다. 지정진 베드로 형제의 작은 방에서 공소예절을 하다가 안동댐 조성으로 예안공소가 수몰위기에 처하자 지정진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2년경에 예안공소의 벽돌과 서까래를 뜯어와 지정진의 집을 새로 짓고 끝방에서 공소 예절을 하였다. 안동본당, 동부동, 용상동본당을 거쳐 1992년 목성동 본당에 소속되어, 매주 방문하시는 본당 신부님과 함께 10여명의 신자가 미사를 봉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점촌동본당 동로공소

Q : 공소 건물의 돌이 독특합니다.

어르신 : 6.25 전쟁 때에 이곳에 포부대가 있었는데 적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돌로 축대를 쌓았습니다. 인민군은 이곳에 주둔하고 아군과 미군은 위쪽에 주둔하고 있다가 3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네 쪽으로 땅속에 시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당 바로 밑, 이곳에서부터 방공호를 산 2-3부 능선까지 사람 눈만 보이도록 땅을 깊이 파다고 합니다. 밤에는 산속에 인민군이 숨어있다가 습격하고, 낮에는 아군이 습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축대를 이용하여 공소를 지었습니다.

전쟁 이후 공소건물이 없었는데 1960년 당시 점촌본당 노도주 아놀드 신부님께서 공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점촌본당 회장님이 다른 신자분과 함께 건축 지휘를 하시고, 공소신자들은 돌을 날라와서 공소건축에 참여했지요. 1960년 11월에 축성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소가 지방문화재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Q : 그럼 1960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공소예절을 했나요?

사비나할머니 : 저는 1933년생인데 22살이던 1955년 이곳에서 멀지않은 수평공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소가 없어 큰마 가정집에서 공소예절을 했지요. 회장 말은집에서 예절할 때 6가정 정도 참석했습니다.

발바라자매님 : 저도 어릴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적성공소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동로공소가 옛날의 적성공소이고, 수몰된 수평공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Q : 몇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지요?

공소에 신자가 많았을때는 80여명 정도 나왔습니다. 건물 안에는 앉아서, 밖에는 서서 미사를 드렸지요. 집이 돌로 지어서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오래전부터 레지오도 하고 있습니다. 공소 교우 전부가 레지오단원이지요.



저희가 농사도 짓고, 인원수도 적어서 다른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반모임겸 레지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60년 2월 9일에 '적성공소'에서 16명, 같은 날 동로면 노은리라는 지역의 '동노공소'에서 10명이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적성리와 노은리는 조그마한 금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지금은 동로면 소재지인 적성리의 공소를 '동로공소'라고 한다. 매월 둘째 주일에 본당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공소 신자로 구성된 루르드의 성모 Pr. 레지오가 설립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 11~15명의 신자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예천본당 지보공소

Q : 공소 새 성전이 봉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어르신 : 2019년 10월 5일입니다. 코로나 전이기는 해도 고구마를 비롯해서 농사지어 건축비에 보태려고 공소 신자들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했죠. 교구내 본당 신자분들과 또다른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할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지요.

Q : 구성원들이 다양하여 참 좋습니다.

어르신 : 저희 공소 식구는 대략 35명 정도인데요, 2살 아기부터 어린이, 청년, 장년, 95세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사때 복사도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교육을 잘 해주셔서 형제님들은 거의 복사 봉사가 가능합니다.

Q : 처음 이곳에 공소가 세워지기까지 애를 많이 쓰셨다고요?

김정일 베드로 어르신 : 74년에 제가 퇴장에서 이곳으로 이사왔을때는 공소가 없어서 도장공소도 가고 원학공소로 미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자를 찾아나섰지요. 10년 동안 신자들을 찾아다녀서 10집, 30명 정도의 신자를 다시 하느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원학공소로 다니던 때인데 판공성사 볼 장소가 없어서 우리집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니 공소 집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Q : 공소 건물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베드로 어르신: 오래전 이 장소에 소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주인이 소를 잃어버려 여기 저기 찾으려다니면서 조사하고 하니깐,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잠실이 있었습니다. 마침 공소 건물이 필요했던 저희가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교구 지원금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잠실을 개조하여 공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두봉 주교님께서 축성하여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Q : 어르신께서 옥수수를 잘 드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사위 라자로 : 95세입니다. 작년 성탄때 루치아라는 본명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때보다 성당에 오시니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모시고 나옵니다.

1958년 이웃 암천공소 마르코 회장의 권유로 첫 세례자가 생겼다. 이듬해 10가구 27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4월 17일 예천본당 노광명 신부에 의해 지보공소가 설정되었다. 그해 11월 26일부터는 원학공소라고 개칭했다. 1982년 잠실이 있던 건물을 매입, 개조하여 공소로 사용하다가 1986년 조립식 공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2019년 지금의 지보공소가 축성하여 봉헌되었다.



의성본당 탐리공소

Q : 탐리라는 지명이 독특합니다.

어르신 : 이곳에 통일 신라 시대에 생긴것으로 추정하는 5층 석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 공소가 탐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문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터에 새로 집을 짓고 사는 저희 신자가 있습니다.

Q : 옛 공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영자 루시아 : 저희는 사별 퇴강성당 근처에서 살다가 79년도에 물난리로 집이 다 떠내려가서 이쪽으로 이사왔습니다. 김영필 신부님께서 공소에 살면서 관리해 달라고 3번이나 권유해서 들어와 살다 보니 우리집이 되었네요.



Q : 공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요?

선교사 서창교 이나시오 : 1963년 강원도 거진공소에서 세례 받았던 이유정(이옥자로 개명) 소피아라는 자매가 농어촌 기술 편물교육을 하러 이곳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자매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신자를 찾다가 신아네스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 함께 의성본당으로 걸어서 미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듬해 신아네스 할머니의 아들인 전진규(안드레아)와 혼인하여 이곳 탐리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Q :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놀랍네요.

공소회장 김수봉 아브라함 : 당시 신자 4명이 모였답니다. 이들이 뜻을 모아 월세방을 얻어 첫 공소예절을 시작했지요. 이 때가 1965년입니다. 그후 1973년 공소가 설립되고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공소 신자가 70여명 정도가 되었던 1986년경 공소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 지금의 부지를 사고 신축하여 11월 30일에 축성식을 했습니다.

Q : 신자분들의 연세가 있으신데도 공소 분위기가 밝고 활기칩니다.

반주자 신정숙 데레사: 보통 60명 정도 나오는데 요즘 농사철이라 적네요. 사목회, 안나회, 레지오가 3개 있는데 신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Q : 2층 성가대석에서 올겐으로 미사 반주 하는 모습이 새롭네요.

반주자 : 저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전례를 위해 기쁘게 반주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고장 나서 못쓰는 것 달라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Q : 내년이 공소 설정 50주년이네요.

공소회장 : 맞습니다. 저희 공소는 많을 때는 90명까지 신자가 불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공소 어르신들의 연세는 많아지는 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조금이라도 불어날 때 본당을 지을 수 있는 터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지금 예비자 두 분도 본당에서 또 선교사님의 가정방문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Q : 의성에 대구 신공항이 지어질 예정이지요?

공소회장 : 이 지역에 신공항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금 기대해 봅니다. 20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저희 공소는 매 주일마다 한 번도 안빠지고 본당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드리시고, 주변에 사시는 두봉주교님께서도 가끔 미사해 주십니다. 저희 탐리공소는 명품 공소, 아름다운 공소, 가족같은 공소, 단합이 잘되는 공소라고 신자들 모두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것입니다.



모전동 본당 오름, 사근, 말응공소

Q : 말응공소에 오니 종소리가 들립니다

말응 공소회장 : 4-5년 전까지는 미사 전에 종을 쳤었는데, 지금은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신 본당 분들이 쳐보고 싶다고 해서 친 겁니다. 소리가 아름답지요.

Q : 3개 공소가 함께 모여 미사하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사근 공소회장 : 공소 식구들이 줄어드니 전에 계셨던 콜베 신부님께서 공소를 돌아가며 함께 모여 미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의지가 되고 덜 서글퍼서 좋습니다.

Q : 성가 소리가 우렁차입니다.

공소부장 : 본당에서 공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성가대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함께하니 성가도 크게 부릅니다. 본당 성모회와 요셉회도 매주 함께 미사를 드립니다.

Q : 성모회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본당성모회장 : 저희는 공소 미사때마다 성모회원들이 2명씩 미사에 참례합니다. '공소에 관심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꾸준히 잘되고 있습니다.

공소부장 : 코로나 시대 전에는 미사 후에 음식 나눔도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은 설거지 등, 어르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 성모회에서 도움을 주러 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드시도록 하고 성모회는 미사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Q : 요셉회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요셉회 : 저희는 매주 차당봉사를 합니다. 3개 공소 식구들이 편안하게 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봉고차로 한바퀴 돌면서 모시고 옵니다.

Q : 공소들 함께 미사하니 좋은 점이 많지요?

말응 공소회장 : 우선, 매주 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는 월 1회만 공소에서 미사했었는데 지금은 매주 하니 좋고 사람들이 많으니 반갑고 활발해서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소마다 옮겨가며 미사 한다고 하니 번거롭게



생각되어 콜베 신부님께서 "다음주에 갑니다" 하셨는데도 안 오실 줄 알고 저희 공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오룡, 사근 신자들을 태워와 미사하시고, 커피 한잔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니 힘이 나고요.

오룡 공소는 1949년 진 마르타가 함창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오룡으로 시집을 오면서 첫 신자가 있게 되어, 1955년부터 공소예절을 하다가 1956년 5월20일에 공소가 설립되었다. 사근 공소는 1942년에 권기방이 모친과 함께 공평본당 이기수 신부께 교리를 배우고 1943년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56년 성탄 즈음 사근공소에서의 세례 기록도 남아 있다. 1957년 9월 점촌본당 (노도주 아놀드 신부) 관할로 공소가 설립되어 신자들이 양동리로 물을 나르고 터를 다지고 직접 흙벽돌을 찍는 등의 노력을 하여 공소 건물이 지어졌다. 말응 공소는 1950년대 말(또는 1960년대 초) 퇴강본당의 전교회장이던 김안나의 활동으로 신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퇴강본당으로 미사를 다녔는데 비가 오면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동네 사랑방에서 공소예절을 하다가 1962년 8월에 공소가 설립되었다.



공소 신자들과 본당 봉사자들



오룡공소(위) 사근공소(아래)

영양 본당 입암공소

Q: 입암(立巖)이란 지명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조병철 알렉시오 공소회장: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선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가 서있다고 해서 생긴 지명입니다.

Q: 입암공소의 종답이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발렌티나 이르신: 지금은 다른 곳에 가신 할머니가 처음 입암으로 시집와서 사는데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성당~ 성당~ 하는 것 같았더라고요. 꼭 오라는 소리 같아서 성당에 오셨답니다. 5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Q: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공소회장: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공소 1호 신자셨던 조천규 울바노 전 공소회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수산나 이르신입니다.

Q: 울바노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기선 수산나 이르신: 우리 어른이 청년때 강원도에서 세례받고 고향인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신자가 아니어서 애먹었습니다. 당시 공소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공소예절을 했지요. 그러다가 군대에 갔어요. 다시 제대하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지요. 강원도에서 알고 지낸 신부님의 영향으로 신부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시어른들의 결사반대로 못되고 저랑 결혼했습니다. 그때 신부님 됐으면 내가 덜 고생했을텐데요^^ 시누이 셋에 아들이 하나였으니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죠.

Q: 처음 공소 건물은 언제 지었나요?

수산나 이르신: 공소예절을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고 후에 마을 회관을 빌려하다가 신자가 늘어나서 공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고 여자들도 함께 했는데, 우리 시누 친구들이 흙을 퍼다가 이겨서 함께 공소를 지었지요. 이때가 1964년이네요.

Q: 지금의 공소 건물이 처음 지었던 건물이 아닌가요?

이르신 1: 초창기 건물이 낡고, 비좁고 해서 1982년에 새로 공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옛날 공소 건물은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의 교육관을 지었지요.

Q: 공소에 유아방이 있네요.

공소회장: 아이들아 없었는데 요즘 5-6명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사 때



아이들도, 어른들도 편하게 미사하시라고 올해 초에 유아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돌되는 아기부터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있지요. 공소에 활기가 넘칩니다.

Q : 입암공소의 자랑이 뭔가요?

공소회장 : 저희는 단합이 잘됩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일도 바쁘신데도 제가 공지사항으로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한마음으로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르신 2 : 저희 공소는 진짜로 친형제,자매같습니다. 모두 한식구 같아서 무슨 일든지 거리낌 없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재미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같은데 여기 오면 식구 같습니다.

입암공소는 1954년 강원도 삼척본당에서 세례받은 조천규 올바노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당시 안동본당 주임이던 여동찬 로제리오 신부의 관심과 방문으로 1961년에 공소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공소 건립을 위해 애쓴 교우들의 정성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1964년에 첫 공소 건물을 마련하였다. 1991년에는 교회 묘지터를 마련하였는데 현재 4구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다. 현재는 30여 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화령 본당 화동공소

화동공소 설립 배경

화동공소는 1959년 설립되었다.

당시 상주본당(현 서문동 본당)은 관할 구역도 넓고 주민 수도 많아서 신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대 주임신부였던 경도범 엘리시오 신부가 1959년 화서면에 임시 성당을 지었는데, 이 성당이 3년 후 1962년에 상주본당에서 분가한 지금의 화령본당이 되었고, 화동공소를 비롯하여 화북·하송·모동·모서공소가 관할 구역이 되었다.

화동공소 건물 소개

경신부가 임시 성당을 짓던 같은 시기에 화동면 반곡리(모란)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반곡공소를 설립하였다. 이 공소가 현재 화동공소의 모태가 된다. 반곡공소는 마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신자들이 불편을 겪던 중, 1964년에 대구 천주교회 재단이 지금의 공소 자리인 이소리 351-1(이소3길 55)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화동공소는 1965년 10월 29일에 상량식을 갖고 입주하였고 같은 해 12월 8일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축성되었다.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의 알빈 슈미츠 신부가 공소를 설계했고, 제대 뒤와 옆 벽면의 성화는 1967년 앙드레 부통 신부가 그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 남아있다.

화동공소 지역의 특성과 작물 재배

화동공소가 위치한 지역은 해발 300m 되는 곳으로 일교차가 커서 벼농사가 어려웠다. 더우기 빗물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야 했기에 살림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때 설립된 공소는 지역민과 신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입교하게 되었고, 때로는 성당 밖에서도 미사를 드려야 했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게 되어 시골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일교차가 큰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타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포도를 생산해 내며 농사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귀촌, 귀농자들도 늘어나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젊은 교우들 중에는 과중한 농사일 등의 이유로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고, 비슷한 이유로 선교에도 어려움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울분회

화동공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시작되었는데, 1997년 12월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안동교구본부'가 창립됨을 계기로 하여 한울분회가 만들어졌다.

한울분회 회원들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안동교구 관내 성당을 다니며 판매한 각종 농산물의 이익금을 성당의 개축과 보수 기금으로 봉헌하였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유기농·무농약 포도(즙), 저농약 사과(즙)와 유자(쥬스), 사과식초 등이다.

화동공소의 현재 (공소회장 이흥재 치릴로)

화동공소에는 현재 40명 내외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미사는 본당 사제가 공소를 방문하여 월 2회의 평일미사, 월 1회의 주일미사를 봉헌하며 공소신자들도 월 1회 본당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빈첸시오회는 30-50대의 남성신자들로 구성되어 회원 40여명이 마을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활동도 했었다. 현재는 2년 전에 시작된 레지오마리에 단원 7-8명이 기도와 활동을 하고 있다.



한울분회 현장교육

공검 본당 은척공소

'은척(銀尺)'이라는 지명은 '은으로 만든 자'를 뜻하나요?

어르신 1 : 네 맞습니다. 옛 설화에 의하면 신라 초기 금자, 은자 두 자가 있었는데 이 자로 병자의 키를 재면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죽지를 앓으니 식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를 숨겼답니다. 금자는 경주 근처에 묻고 은자는 신라에서 가장 변방이고 백제와 경계지점인 상주에 묻었는데 어디 숨겼는지 알려지면 안되었기에 은자를 묻고 온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후대에 어디 묻혀있는지를 모르기에 난곡리에 있는 산을 '은자산'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처음 공소가 설립되네요. 그때 세셨던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어르신 2 : 당시 어르신들은 거의 안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재영' 이신데 1956년에 입교하신 6명 중의 한 분이십니다. 1년 뒤인 1957년에 설립된 함창본당 소속의 은척공소 초대 공소회장을 하셨죠. 첫 공소 자리는 지금의 꽃밭과 주차장 자리이고 사택이 공소 뒤에 있었습니다. 1960년 대에는 신자수가 200여 명을 넘어 은척 본당을 설립하는 계획까지 있었는데 이후 농촌 인구가 감소해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공소는 1996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님들이 오셔서 지역 내 공부방과 다문화 지원 사업과 공소사목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은척공소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젤라 : 제가 학교다닐 때 주일학교 학생수가 25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당 뒤쪽 화장실을 저희 학생들이 지었습니다. 원래 가장자리에 탱자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뽑고 편백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당시 사택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학생들이 나무판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시멘트를 부어 비석을 만들어 공동 묘지에 비석처럼 세워드렸습니다. 1979년도 학생회하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당시 미사 때 남녀가 따로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샘에 가서 방석을 빨아서 측백나무에 걸쳐서 말렸습니다. 샘에 있는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방석을 빨았는데 나중에는 펌프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의 소임으로 다문화 지원 사업과 공부방을 하시네요.

수녀님 : 다문화 지원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없어서 명절에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초등학교 8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와서 저녁 6시 30분 정도 되면 집에 데려다 줍니다. 부모님들이 농사 지으시니 저희가 아이들을 돌봐주어 안심하십니다.

미사에 신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수녀님: 주일미사와 수요일 평일 미사가 있는데 주일미사에는 약 40~50명, 평일미사는 15~20명 정도 참석합니다. 2개의 레지오가 있고 공소의 모든 행사를 레지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탄 구유 꾸미기, 단체 음식 나눔 등) 공소 대청소때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신자들이 함께 유리창부터 거미줄까지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기도모임과 성경공부반, 예비자교리반 2팀이 있어요. 한 팀은 12월25일 세례 받았구요. 3월이면 또 한 반은 교리를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전례부가 있어서 미사준비와 뒷정리까지 하고 계세요.



공소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수녀님: 그렇습니다. 저희 공소는 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반별로 공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학생수는 적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카톡으로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있네요.

수녀님: 농한기인 12월 - 2월까지의 3개월 동안 은빛대학을 합니다. 15명의 어르신이 참석하고 있고 올해로 벌써 제4기입니다.



함창 본당 하갈공소

Q : 하갈 공소는 언제 지으셨나요?

할아버지: 우리가 젊을 때, 공소는 있었지만 공소 건물이 없어 가까운 퇴강 성당으로 다녔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가 공소 회장을 맡았을 때 직접 이 공소를 지으셨죠.

할머니 1: 내가 이 마을에 시집온 것이 스무 살이었습시다. 여기 시집오고 그 이듬해 공사를 시작했고 그때 남편이 공소 건물을 짓는 것을 도와 벽돌을 나르다가 군대에 간 기억이 나네요. 내가 올해 여든두 살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61년 전 일이네요. 신자들이 다같이 공소를 지었습니다.

Q : 그러면 상갈 중갈 하갈 마을도 함께 신앙 생활을 한 것인가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그때는 하갈 마을에만 신자가 있어 하갈 마을 신자들 중심으로 공소를 짓고 신앙 생활도 했습니다.

Q : 공소를 지을 당시 신자 수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당시 세 마을 250가구에 신자 700명이 살았다는 말이 있네요.

할아버지: 안 그래요. 그때 당시 하갈 마을 가구 수가 40가구 정도 되었지요. 그 중의 절반은 외인이고 우리 신자 가구는 한 스무 가구쯤 되었습니다.

할머니 1: 당시 한 사십명 정도 되었을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우들이 퇴강 성당에 다녔는데 공소를 지을 때는 한 30명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3: 공소를 지을 때 신자 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 때는 레지오도 함께 하고 그랬어요.

할머니 4: 그런데 7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법 한 이유는 과거에 원조를 받아 공소에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받은 분들을 다 합한 숫자일 수 있겠네요. 주변 마을에서도 공소에 물건 받기 위해 많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Q : 현재 미사와 공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할머니 2: 셋째 주에는 본당 신부님이 오시고 다른 주일은 공소 예절을 합니다. 저기 앉아 있는 분 바깥 양반이 37년 동안 공소 회장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선교도 하고 그래서 공소를 많이 살렸지요.

할머니 3: 우리 노인들이 하는 봉헌은 얼마 안 되지만, 명절 때나 고향에 오시는 신자분들과 자제분들이 공소발전을 위해 봉헌해 주어서 공소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 : 신앙생활 했던 옛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1: 공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때는 청소도 레지오도 함께 하면서 젊은 신자들은 교육을 받으러 자전거를 타고 점촌도 가고 안동도 가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Q : 공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할머니 5: 공소를 지은 지가 오래되고 낡아서 창문에서도 바람이 들어와 몇해 전에 교체했고 지붕을

개량할 때도 전 신자들이 협조해 줘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교체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는 등 건물을 수리할 때 공소에서 모은 돈으로 해결하느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루 바닥이 무너지고 깨진 곳이 많아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하갈 공소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1925년 이전 하갈에서 세례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공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956년 최영호 비안네 신부가 6대 주임 신부로 퇴강 본당에 부임하여 퇴강 성당을 신축할 무렵 공소를 다시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하갈 공소의 시작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 15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본당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건물을 지을 당시 번성했던 젊은 하갈 공소의 모습이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 쇠락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신앙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함께 모여,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일생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온 연로한 교우들의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짙은 은총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



울진 본당 죽변공소

죽변 공소는 안동 교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죠?

공소회장: 원래 이곳은 원주교구 소속이었고 안동교구가 설립되기 전, 또 울진 성당이 생기 전부터 있었던 공소입니다. 레지나 할머니가 잘 아십니다.

레지나 할머니(94세): 내가 이 동네에 스무 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때는 여기가 강원도였는데 이 동네에는 본당도 없고 미사 볼 데가 없어 미사 보려면 서면이나 삼척까지 가야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이 동네에 오신 중학교 여선생님 두 분과 같이 주일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공소 예절을 드렸어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공소 예절을 하니, 자연스럽게 죽변에 공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죽변 공소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소회장: 주일 미사마다 외국인들이 같이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분이 오셨네요. 우리 지역에는 선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특히 동티모르에서 온 신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수원에 계시는 서티모르 출신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죽변 공소밖에 없습니다.

공소 공동체 생활에서 모범적 사례가 있다면요?

공소회장: 우리 공소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집전하는 미사나 공소 예절을 할 때나 전례 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신자가 자발적으로 전례를 준비하고 참여하여 복음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실체를 느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신자 1: 우리 공소는 특히 단합이 잘됩니다. 성당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조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소 자체 사목회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신자 수가 본당에 비해 적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성 신자: 우리 공소는 레지오도 두 팀이나 있고 구역도 두 개의 반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 모임의 경우 반장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반원 간의 연락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반원 전체가 잘 모이고 있습니다.

남성 신자 2: 자매님들은 반 모임을 통하여 함께 할 기회가 많지만 남성 신자들은 직업, 연령 등의 차이도 있고 함께 모일 기회도 적어 성당에서 만나도 서먹서먹할 때가 많아 자발적으로 남성 단체인 요셉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나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봉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회원들이 조성한 모금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죽변공소의 발전을 위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 신자 2: 우리 공소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공소 건물을 새롭게 지어지기를 전 신자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성신자 3: 우리 공소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공소가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소가 젊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성당에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58년 울진 본당과 함께 설립된 죽변공소는 1965년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 소속으로, 1969년 5월 29일 안동교구로 소속이 변경된 곳으로 현재 50여 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규모가 큰 공소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사람의 몸에 견주어 본다면 울진 지역은 손이 닿지 않은 등과 같은 곳이라고도 한다. 지리적으로 죽변공소는 등이 가려운데 손이 닿지 않는 곳과 같은, 과거에는 아주 오지였다.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공동체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잘 녹아들어 개인의 역할을 다할 때 만들어진다. 더 신명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죽변 공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성탄절 주교님 방문기념

춘양 본당 두음공소

'두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원래 마을 이름이 우리말로로는 등골, 두메였습니다. 등골 안에 10Km에 걸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마을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음이란 한자로 말두(斗) 소리음(音)을 썼죠.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공소가 위치한 이 자리에 아픈 역사가 있다고요?

이 공소 자리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경찰들이 사용하던 감옥 터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원한들이 많아서 원한 맺힌 땅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이 땅을 교우분이 봉헌하시고 공소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뜻 같습니다.

공소회장님 이곳에 오신지 몇년 되셨나요?

55년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 더 오래되셨습니다.

할머니 : 고향이 대구인데 시집이 이곳이다. 18살에 시집와 지금이 83세이니 65년 되었네요. 시집와서 오래 있다가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다가 가족과 같이 다니게 되었죠. 남편은 믿지 않다가 몸에 병이 생기니 마음이 돌아서서 대세 받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미사때 해설한 이가 맞아들입니다.

공소회장 : 88년 가톨릭 농민회가 고추 제값 받기 운동을 할 때 동네에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유재준 신부님께서 자주 공소에 오셨었는데 동네에서 가톨릭 농민회의 동향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부님과 수녀님을 내외라고 보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옛 공소 건물이 있었을 때 가톨릭 농민회에서 경찰서장과 군수들을 불러놓고 "왜 이런 농민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육했습니다. 군수나 서장이 오니 그 밑에 있는 면장, 조합장들이 따라와서 반강제적으로 강의를 들었죠. 이 동네에 당시 가톨릭 농민회밖에 없으니 누가 밖에 나가면 벌써 신고들어가서 따라 다닙니다. 군 행정계에서 나온 한사람, 면에서 나온 직원, 조합직원, 경찰 직원 한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우리만 나가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소 이 자리가 바로 봉화군 농민운동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자리입니다. 당시 유재준 신부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봉화본당의 사목회장도 역임하셨던 정태중씨라는 분이 봉화에서 터주대감같은 어른이신데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 : 옛날에 제가 성당에 다니기 전에는 이곳 땅의 기가 아주 썩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 저녁으로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눈에 성당의 우리가 있는데 안에서 불이 붙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옷을 벗어서 머리에

쓰고 눈만 보이게 다녔어요. 이 후에 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5-6개월 지나니 이곳을 다녀도 불이 없어졌고 무서움도 없어졌지요. 믿음이 좋아졌지요.

회장님 : 동네 어르신들이 아프기만 하면 곳을 하곤 했는데 신기가 있던 사람도, 추운 겨울 맨발로 마을을 뛰어다니던 사람도 성당에만 오면 그런 기가 없어져서 동네에서 '귀신 중에는 천주교 귀신이 제일 세다.'라는 말들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 감옥이었던 죽음의 터이며, 원한의 터를 생명의 터로 변화되게 한 것이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두움공소의 시작은 이렇다. 1964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에 거주하던 류희락의 가족 모두가 괴질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웃 주민 위봉운이 강원도 정선본당 신자인 친척 최찬규를 모셔와 약 10일간 기도하며 간호한 후 앓던 사람들이 모두 나았다. 감명을 받은 류희락 베드로가 원주교구 장성성당을 다니며 교리를 배워 1966년 4월 26일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엄기섭 집에서 장성성당 이영섭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에게 세례성사를 받았다. 이후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장성성당 신부를 초청하여 가정집에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원래 공소자리가 일제강점기 왜경들이 감옥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 원혼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신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이 계곡 입구에서 나쁜 기운을 억누르고자 공소를 건축하였고 현재 15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봉화 본당 재산공소

재산공소가 오지에 있는데도 전례가 잘 이루어져 있네요.

공소회장 : 우리 공소는 본당같은 공소입니다. 원로사목자이신 한상덕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매주 애정과 열성으로 미사를 집전해 주시어, 행사 등 본당에서 이루지는 모든 전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공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 공소만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자(남) 1 : 늘 나오시는 신자 90%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소에 비해서 젊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꾸르실리스타가 한해에 3명이나 배출된 적도 있어 공소에서는 어려운 율뜨레아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지오도 조직되었습니다.

신자(여) : 이곳으로 귀농한 지 25년 되었는데 신자들이 모두 가족같습니다. 미사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웃 사촌처럼 서로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신자(여) 2: 전에는 귀농하신 분 중에 암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 시골의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을 먹고 치유도 되고 회복되어 본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암환자 클럽이라고 하기까지 했단니까요. 우리 공소가 그분들의 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이 췌장암 환자였는데 오실 때는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었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공소에 오셨을 때 상황은 어땠었나요?

신자(여) 3: 25년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신자가 없어 공소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농민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우리 공소에서 금방 세례받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처벌받고 하느라고 안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공소가 점점 쇠락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자(여) 4: 저는 15년 되었는데 그때는 신자가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소에 해결해야 할 에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공소회장 : 공소 공동체의 신자들은 봉화군 재산면과 명호면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명호면 신자들이 공소가 가까운데도 봉화 본당으로 많이 가십니다. 공소가 활성화 되려면 그분들도 이곳에 함께 왔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성당의 제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자들이 공소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미사 대신 공소 예절을 해야 하는데 영성체를 못하면 서운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신자(남) 1: 신부님이 안계실 때

성체를 모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가 성체 분배권 교육도 받았었는데, 성체 보관 및 이동문제 등 절차가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공소에서는 성체 분배권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귀농하기 전 도시 본당 생활과 귀농 후 공소에서의 신앙 생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신자(여) 5;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의 큰 본당을 다닐 때는 바쁘기도 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미사만 다녔는데 여기에 오니까 역할이 엄청 커졌습니다. 사람 수가 적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감당하기에 벅찼었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대구 본당에 가면 이곳 자랑을 많이 합니다. 공소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멀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시골 공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공소에서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기쁩니다.



1955년 공소가 설정되고 1959년 4월에 지어졌다. 전쟁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되었던 작은 신앙공동체는 부침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고 내후년에는 70주년을 맞는다. 산골이를 겹겹이 돌아 들어가는 오지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교우들은 물론, 지역 사회 주민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정겨운 공동체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개운동 본당 외남공소

공소 설립 당시의 사정은 어떠했나요?

어르신 1 :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1960년도에는 천막을 치고 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천막이 날아가고 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때는 구호물자로 밀가루도 주고 하나씩 성당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62년도 3월 1일에 공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호물자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간 거예요.

공소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땠나요?

공소회장님 : 저는 불교 집안이라서 성당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갓 시집와서 성당에 다녀오시는 시어머니께 "뭐하고 오셨느냐?"고 여쭙보면 '성모신공(묵주기도)'을 하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성당에 가자고 권해서 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흙벽에 마룻바닥이라 실내인데도 바람이 하도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지는 않고 엄청 춥기만 했습니다. 교리하시는 분이 할머니들이 하도 이야기를 못알아들으니 팡 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많이 놀래서 아이를 유산했어요. 애기까지 떨어지니 "나는 이제 성당에 안 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지금은 작고하신 장 가밀라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성당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가자"고 하셔서 1972년부터 성당에 다니기 시작해서 76년도에 남성동 도요한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그길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충무를 한 거예요. 그때 신자 수가 3,40명 정도 됐습니다. 젊은 분도 많았는데 70년대 중반 되니까 이농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회지로 다 돈 벌러 나가고 할머니들만 계시고 동네가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어르신 2 :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시골에서의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농사일이 기계화가 안 돼서 전부 손으로 일할 때니까 모 심을 때가 되면 새참도 해서 날라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 가운데 짬을 내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3 : 젊을 때 성당에 아기를 텔고 갔는데 미사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아기를 잊어먹고 성당에 놔두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성당에 놔둔 걸 잊어먹고 집에 가니까 어른들이 '야야, 니 왜 아(아이) 안 데리고 왔노?' 그래서 부리나케 성당으로 다시 가니까 애기가 성당에 누워 잘 자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 때는 안동에 레지오 회의가 있어, 한번 갔다 오는데 차가 없어서 청리로 해서 상주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느라 애를 먹었어요. 갓난아기를 두고 안동 회의에 갔다가 애기 먹일 젖이 없어서 고생하며 힘들게 종일 갔다 오니까 공소 총무님이 아기를 봐주었는데 애기가 안 울고 잘 놀아 다행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2 : 크리스마스 때는 봉고차도 없고 해서 먼 데까지 미사 드리러 못 가니까 공소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빵도 해 오고, 국수도 해 오고, 상품도 나누고 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자체적으로 뽀레시디움을 구성하고 있네요.

공소회장님 : 네 공소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뽀레시디움입니다. 공소 예절을 하기한 시간 전에 레지오 회합을 합니다. 처음에는 13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단원이 9명입니다. 2016년 공소를 새로 지으면서 과거의 레지오 기록을 찾아 끌어졌던 레지오를 다시 이어 오늘 자로 1,120차나 되었습니다. 햇수로 보면 20년이 넘는 역사인데, 68년인가 70년부터 있었던 레지오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더라면 3,000차도 더 됐을 겁니다.

1962년 8월에 공소 봉헌식을 한 외남공소 신자들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에도 서로가 한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은 또한 우리 삶의 뿌리로 남아 있지요. 그것이 그때는 그러했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닮으며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남성동 본당 용포공소

공소 초대 회장님이셨던 양화석 바오로 어르신 여기 계신가요?

어르신1 : 저의 바깥양반이에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다면 94세네요.

바오로 어르신께서 군대에서 세례받은 후 동네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1: 신자 7-8명과 운평공소에 다녔는데 너무 멀어서 다니지 못했어요. 본당 초대 주임신부님으로 오신 민공도신부님께서 이런 사정을 아시고 1965년에 공소를 설립하셨죠. 처음에는 우리 밭을 그냥 줬는데 신부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후손들과 어려울 수 있다고 안된다고 해서 돈을 주셔서 받았어요. 그리고 공소 건물을 지었죠. 그전에는 미사를 본당으로 다녔는데, 새벽밥 지어 먹고 어두울 때 집을 나서 서문동본당까지 걸어서 다니면서 세례받고 했어요. 본당이 여기서 16km인데 빨리 걸어도 4-5시간 정도 됐죠.

신앙생활 참 힘들셨네요.

어르신1 : 신부님들이 그러세요. 우리공소가 말로만 듣기에는 서글썩는데 와서 보니 참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공소 지어놓고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하고 점심밥을 자시고 '산골'이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영감하고 집을 나서요. 산을 넘어 가셔야 하는데 신부님이 길을 몰라 혼자 못가시니깐, 우리 영감이 함께 가야했죠. 산골에 신부님 모셔드리고 우리 영감은 껌껌할 때 집으로 돌아와요. 옛날에는 애먹었어요.

공소 주변 정치가 아름답습니다. 공소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죠?

어르신1 : 옛날에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바닥에서 미사하고 나서 점심을 해주니 사람이 많았었죠. 그때는 해 먹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매번 점심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냥 술은 작아서 안되고 소죽 끓이는 가마솥에 하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이 참 맛있었죠. 지금도 가끔 밥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공소 나오시는 할머니 중 90세 할머니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나는 89세예요. 그래도 우리 공소에 앞으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장이 아주 작았을 때부터 그 어른들이 공소에 다녔고, 우리 아들도 일하러 가끔 집에 오는데 지금은 퇴직했으니 아마 앞으로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앙드레 부통 신부님의 벽화가 남아있네요.

어르신2 : 그림이 제대뒤와 성당 입구쪽에 있었는데 성당입구쪽 그림이 어느날 보니 없어졌어요. 공소를 깨끗하게 하는 색칠 작업을 할때 벽화도 색을 칠해버렸어요. 공소가 오래돼서 얼마전에 지붕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참 좋습니다.



상주라서 그런지 동네에 감이 많습니다.

여기분들이 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감 종류만 해도 엄청 많아요. 소비자는 씨가 없고 양이 많은 감을 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5-6개 들어있으면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씨없고 맛있는 감을 위해 상주에서 연구 많이 합니다.



용포공소의 형성시기는 1960년경으로 추정한다. 1953년 양화석 바오로가 군대에서 세례받은 후 신앙생활하게 된것이 계기가 되어 1965년 4월에 공소설립, 1967년 공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1967년 9월에 양드

레 부통 신부가 제대 뒤편 벽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렸다. 벽화 그리는 열흘 정도 공소에 체류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벽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돈주머니를 들고 혼자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유다와 십자가 밑에 성모님과 함께 1960년대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과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 아이의 모습이다. 성경의 한 장면 속에 당시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넣은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고 한국을 사랑하셨던 부통 신부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다. 현재 5명의 신자가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은 본당 농암,상신원,쌍용공소

농암, 상신원, 쌍용공소 신자들이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네요.

상신원 어르신 1 : 신자가 별로 없어서 농암공소에 옵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소도 신자들도 많고 모두 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신자수도, 열성도 덜한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소예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신자들의 눈치가 보일 정도였지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족 전체가 성당에 와서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방학때 신학생들이 한달씩 공소에 머물렀는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상신원 어르신 2 : 당시 상신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8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폐교되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도 가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정이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형편입니다.

쌍용공소, 농암공소는 어떤가요?

쌍용 어르신 1: 쌍용공소의 내력은 오래됐죠. 120년 전에 대구교구가 처음 생겼을 때 주교님이 쌍용공소를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는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토박이는 거의 돌아가시거나 이주하시고 현재 신자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농암 어르신 1 : 저희 농암공소는 다른 공소에 비해 신자수가 많은 편이고 전신자들이 모두가 합심 단결하고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저희 공소의 자랑거리는 예비신자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예비신자분이 미사에 함께 참례하고 있습니다.

농암 어르신 2 : 오늘 나오신 예비신자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달 되었는데 이 두분은 감리교회에 20년 이상 다닌 분으로 장로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소에 나가자고 인도해서 지금 교리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작년 성탄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20년 전, 그때는제가 세례를 받기 전인데 장모님을 성당에 모셔다 드렸는데 성당 지붕이 수십 년 된 스텔트였고 석유 난로를 세 개 피웠는데 냄새도 심하고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로를 사다드렸더니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듬해 봄에 또 와서 보았더니 벽에 물이 새서 시커멓게 변해 있어서 제법 큰 돈을 들여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환경이 열악했었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기 전인 20여년 전에 이미 우리 성당과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다가 늑막히 아내와 같이 성당에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지요. 지금은 이웃의 두 사람을 성당에 인도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농암 어르신 1 :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신자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하셨



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에 우리 공소가 이렇게 번창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소를 지을 수 있었고 덕분에 새로운 신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 건물을 짓기 전에는 굉장히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동네와 연고도 없는 분이 새로 건물

도 지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소는 항상 가고 싶은公所, 보고 싶은 우리 교우님들, 정말 끝내주는 농암公所입니다.

쌍용공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당시 박해를 피해 이씨 집안들이 이곳에 피난와서 살았던 1866년 병인박해 전후로 추정된다. 복음이 활성화 된 시기는 1890년 이후로 당시 신 나무골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성사를 집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18년 7월 25일 '내서천주당'이 설립되었고 1962년 옛公所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년에는 새로운公所 건물을 신축하였다. 현재는 신자수가 적어서 몇명의 신자가 농암공소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농암公所는 1955년 신상철 아오스딩이 19세의 나이로 점촌본당 농암公所 전교회장 소임을 받고, 그해 7월 정해웅 요셉의 자택에서 신자 20명과公所예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에公所 건축이 이루어졌고 2013년 선교사가公所에 상주하였는데 이 때 신자수가 50여명이었다. 현재 40여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상신원公所는 1957년 점촌본당의 노도주 아놀드 신부님이 여의사 말가리다와 농암을 지나다가 다리 밑의 한센 환자 무리를 발견하고 공소를 마련한 것이公所의 시작이었다. 그해 '상신원'이라고 공소를 설립하여 정착 자금을 지원받아 33명이 정착하게 되었고 10년 뒤에는 180여 명으로 정착 인구가 늘어났기에 1985년公所 건물을 짓고 그해 10월 5일 상신원公所가 봉헌되었다. 현재는 농암공소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송현동 본당 풍산공소

Q: 풍산공소는 1930년대 중반에 신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네요.

할머니1 : 우리 공소는 웅기굴에 제대를 차려 놓고 거기서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젊었을 때 이 동네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집이 공소였습니다. 거기서 공소 예절도 하고 웅기도 굽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동네 강변(지금의 하리 2동) 마을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또 웅기굴을 차리고 웅기 굽고 그분이 회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아버님께서 하리 2동 강변마을에다가 공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식량이 모자라서 모두가 한참 힘들었을 때인데 외국에서 밀가루, 강냉이 가루, 우유 가루 이런 것을 주니까 그거 타려고 공소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공소가 딱 차서 공소밖에 명석을 깔아놓고 공소 예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Q : 1950년대 초반 공소 신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소를 지으셨다죠? 어르신께서도 이 사진에 있으시죠?

서숙자마리아 어르신 : 네 흰저고리에 검정치마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왼쪽 첫 사진) 제가 21살 때인데, 올 해 89세이니 벌써 68년 전이네요.

할머니 2 : 제가 시집오니까 우리 시할아버지는 목성동 성당이 있기도 전인데 성당에 다니시고 집에 조그맣게 제대를 차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주교님이 오셔서가지고 가정 미사도 드리고 성사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뒤에 풍산에 공소가 생겨서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 3 : 나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목성동 계실 때가 19살이었는데 그때 추기경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Q: 고속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이어지고 경북 도청이 가까이 있고 수녀님들이 파견되시고 하여 공소 상황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소 상황은 어떨까요?

공소회장 : 우리 공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풍산의 인구가 줄어들어 신자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청이 가까이 들어서니 풍산에 살던 사람들이 도청 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소 신자들도 도청 신도시로 간 사람들이 많고요.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 사이에 끼여 점점 신자가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남신자 2 : 공소에 수녀님들이 오시게 되어 수녀님들의 거처를 새로 짓고 공소를 리모델링 하면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교구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나



머지는 공소 신자들이 마련하였습니다. 공소의 벽에 그려놓은 야생화가 이쁘다고 신자 아닌 사람들도 구경옵니다.

여신자 1: 현재 우리 공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참 재미나게 지냅니다. 또 우리 공소 출신 신부님(김정현 마태오)도 계신데, 여기 계신 이분이 신부님 어머니입니다.

풍산(하리)공소는 문경 가운에서 살던 김달서 마태오와 임수근 야고보가 1930년대 중반 명동으로 이주하여 웅기굴을 하다가 얼마 후 김달서는 1936년경 다시 풍산 하리로 옮겨 웅기굴을 차려서 풍산공소가 시작되었다. 웅기굴은 한국교회사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박해를 피해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이 웅기 굽는 일이었다. 풍산에 공소가 설립된 시기는 1930년대로서 그때는 안동에도 목성동 본당이 있을 때이지만 풍산에는 타지에서 온 교우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풍산공소로 발전되었다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교회의 역사와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소 신자분의 말대로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가 이어지는 도로의 중심에 있는 풍산공소는 주민의 많은 수가 이주하여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뿌리 깊은 신앙의 역사로 미루어 보아 공소 신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돈독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림동 본당 길마을공소

Q : 이곳이 본래 공소 자리인가요?

할아버지 1 : 저의 할아버지가 공소를 시작했는데 본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집을 고쳐서 옛날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마을 안쪽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안에 공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맞은 편에 있었는데 우리 어릴 적에 신부님이 오시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석을 쳐서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제대로 지었지만 그렇게 공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여기 출신 신부님도 계시는데 제 사촌의 손자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 공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2 : 지금 제대 위에 있는 이 고상은 제가 국민학교 4-5학년 때 물미 본당에서 열린 문답 대회 나가 2등해서 상을 타온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공소가 물미 소속이었거든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Q : 이곳은 송씨 집성촌인가요?

할아버지 3 : 네 여기는 송씨들만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송씨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회장님은 저 밑에 동네에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우리 공소에 오시는데 유일하게 김씨가 한 분 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소의 전성기 때는 그 수가 2-30명은 되었습니다. 애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나오시면 12명이지만 두 분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은 계속 열 명만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공소를 지금처럼 증축한 때는 박노제 신부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자리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Q : 공소분들의 정성으로 이 집이 지어졌네요.

할아버지 4 : 맞습니다. 그때는 흙벽돌이었었는데 새로 짓기 위해 터 닦을 때 어렸지만 저도 곡괭이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신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5: 옛날에 중방공소를 뜯을 때 그 뜯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 공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중방공소는 제법 잘 지었는데 우리 공소는 아주 허술했지요. 그것을 뜯어와 지붕까지 그대로 다 여기에 다시 붙여 지어서 공소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지금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6: 그때 모이세 어른이 회장님을 할 때인데 그때는 경운기도 없던 시



절이라 소달구지에 중방공소를 뜯어서 신교 왔습니다.

길마을공소가 설립된 지는 100여 년 정도 되지만 그 이전부터 신앙 공동체가 있어 실제로는 120년이 넘는, 안동교구 내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공소이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회지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 공소를 지키고 있지만 오래된 신앙의 뿌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또 새로운 뿌리 내림을 반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공소를 통해서 전해준 신앙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례에 참여하는 공소 어르신들의 숫자는 몇 안 되지만, 오랜 세월 이어온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고자 공소 어르신들과 함께 예절에 참여하는 본당의 레지오 단원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Q : 공소 분위기가 잔칫집 같습니다.

본당 신자 :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께서 방문하실 때 본당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함께 옵니다. 공소에서는 각 집에서 한가지씩 먹을거리를 준비하시고 저희도 올때마다 준비해와서 함께하니 잔칫집 같습니다. 오랜 전통입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피자, 치킨 같은 것들도 사오고 했지요. 공소의 인원은 적지만 본당에서 공소분들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않으셨으면 합니다.



함창 본당 아천공소

Q : 미사 전에 종이 올리네요

공소회장 : 전에는 미사 30분과 5분 전 두번 종을 쳤는데 지금은 5분 전에만 칩니다.

Q : 어르신들 젊었을 때 공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1 :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우리 공소에 방이 세 개였습니다. 십이단방, 중학생방, 문답방이 있었는데 학교갔다 오면 저녁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서 성당에 군불을 때서 교리를 배우곤 했어요. 만약에 교리 시간에 빠지면 어른들에게 혼이 나는데 오히려 학교에 안 가면 야단을 안 맞을 정도로 성당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저기 계시는 분 아버님에게서 교리를 배웠는데 교리 숙제 내준 것을 못 외우면 목침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십이단은 우리 천주교회의 12개의 주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다 외워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당의 방 이름이 십이단방이었겠습니까?

할머니 1 : 그때는 교리 문답 숙제를 내서 못 외우면 목침 위에 서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요즈음은 삶은 소리라도 한마디 들으면 냉담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교리 공부를 시켰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기도 하지만 교리 배우러 오면서 한 사람당 의무적으로 장작 2개씩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걸로 군불을 땀거든요. 12개 기도를 다 외어야 했는데 그때는 참 엄하게 교리를 배웠어요.

할머니 2 : 그때는 방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드렸는데 신자 수도 참 많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조를 짜서 성당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물을 데워 와서 바닥을 걸레로 전부 다 깨끗이 닦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1 : 그때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교리를 배우기도 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야학을 열어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배워서 문답대회에 나가서 우리 공소가 일등을 해왔습니다. 모두 좋아했지요. 그만큼 우리 공소는 신앙심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공소에서 배출한 신부님 수녀님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삼년 전에도 우리 공소에서 대구대교구에 신부님이 나셨습니다.



Q : 우리 공소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공소를 처음 지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요?

할머니 2: 이곳은 참 옛날 건물입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이분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베어 가지고 와서 손수 지은 것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전 이야기이지요.

할아버지 2: 옛날에 이 건물 지을 때 큰 포플러나무를 사용하였는데 교우들이 직접 베어서 목도를 해서 여기까지 메고 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소회장님: 우리 공소는 역사가 깊어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우리 성당이 역사도 오래되고 지은 건물도 오래되어서 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본 적도 있었지만 최근의 수리 공사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아천공소는 신앙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안동 교구뿐만이 아니라 경북지역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아천공소에 뿌리내린 신앙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그 이듬해 을사추조적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광수 어른신 가족이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내려와 신앙의 뿌리를 내린 곳이 이곳이다. 아천공소는 순교 박해 시대의 역사를 함께하였고 우리 안동 교구 신앙의 뿌리와 같은 자랑스러운 곳으로 지켜나가고 보존해 가야 하는 우리 신앙공동체이다.



다인 본당 신산공소

Q : 초기 공소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할아버지 1: 이 동네는 옛날부터 경주이씨 집성촌이에요. 우리 공소는 100년도 넘고 사제 수도자도 많이 배출되었죠. 마을회관을 공소로 사용하다가, 흙벽돌로 공소를 지었다가 다시 고쳐 지은 것이 지금의 공소예요. 6.25 전쟁 직후에는 100여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는데 6~70년대는 70여 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할머니 1: 옛날에 공소 건물이 없던 시절에 신산공소 출신인 이찬우 신부님(부산교구)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방에서 공소예절을 시작했었어요. 저도 군위 본당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죠.

할머니 2: 박로제리오 신부님이 고향인 로마에 가서서 돈을 얻어와서 75년에 우리 공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공소 지었다고 잔치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시집오니까 시어머니가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65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2: 그 이탈리아 신부님은 다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신부님은 절대 오토바이도 안타시고 다리가 길어서인지 보통 사람 한 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다니셨지요.

Q : 우리 공소의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2: 당시 다른 성당에 가서 교리문답 시험을 치면 상은 전부 우리 공소에서 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요.

할아버지 3: 처음에는 공소가 없어서 사방으로 성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에는 차도 안 다니고 큰길도 없어서 주로 산길로 다녔는데 전부 걸어 다녔지요. 다인성당까지 걸어서 한 시간인데 군위나 퇴강성당까지도 성사보러 갔었죠.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Q : 신안 생활하며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 3: 아주 옛날, 공소도 없었던 시절에 신부님께 가마를 보내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모셔서 성사를 보았습니다. 신부님이 한 번 오시면 공소에 며칠씩 머물면서 옷날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부님이 오시면 꼭 새벽 5시에 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미사 전에 물도 한 모금 먹으면 안 되었지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이 오시고 대미사 때는 저희가 다인 본당에 가기도 합니다.



할머니 4 :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네 시만 되면 묵주를 들고 기도를 많이 바쳤더니 하느님께서 손자 둘을 주셨습니다. 큰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매일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신산공소는 1952년 예천본당 신현옥 치릴로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고 세례를 베풀며 공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공소의 첫 신자는 강로사였고 후에 시택인 경주 이씨 집안에 전교가 되면서 아들 이찬우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차츰 신자들이 늘어나자 이대영이 신산공소의 초대회장이 되어 가정집에서 공소예절을 하다가 1957년 신자 수가 50여 명이 되었을 즈음 동네 마을회관을 매입하여 공소로 사용하였다. 다인본당의 박로제리오 신부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신축 공사를 하고 1975년 8월 10일 공소를 봉헌하였다. 현재 15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화령 본당 화북공소

Q : 화북공소의 삶은 어떤가요?

여성 신자 1: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이동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 본당까지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소가 생기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소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 했습니다. 공소를 짓기 전에는 자매님 댁에서 공소예절을 했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공소가 완공되고는 제법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신자 수도 줄어서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신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소 회장 : 우리 화북공소는 지난 10월 31일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3대 회장입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없어서 50년간 성당을 다니지 못하다가 집사람을 만나서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화북에 공소가 없어서, 보전소 소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유월에 돌아가신 김인숙 수산나 자매님과 함께 충북 미원 성당 소속 삼성 공소로 다녔습니다. 수산나 자매님은 우리 공소가 생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저는 우연히 화령본당 김 신부님의 초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당에 나와 신부님께 첫영성체를 받았고 그 후 공소회장직을 맡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공소에 레지오를 결성한다는 조건으로 교육관을 추가로 지어주셨는데 레지오가 결성된 지 올해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레지오 회합에서 조별 과제로 새 신자들을 전교하다 보니 성당이 팍 찰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공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자기희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Q : 화북공소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르신 : 우리 공소는 6. 25사변 후에 밀가루 얻으러 성당에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 때에 북한에서 피난해 오신 신부님들도 우리 지역에 계셨는데 이남으로 내려올 때 나락을 훑어 먹으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은 왜관 수도원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당을 지은 것도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때 공소는 삼성, 입성 그리고 화북 세 곳이었는데 그 당시 왜관 수도원에서 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공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소가 흐지부지되고 중간에는 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수산나 자매님을 중심으로 4사람 정도가 공소를 다시 짓자고 나섰는데 남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소 건물을 지을 때 전달수 신부님이 1억을 기부하시고 공소 신자들도 공소 만든다고 비누도 만들어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숫비누 몇 개 팔아가지고는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소 건물을 지을 때 근처에 다른 먼 공소 신자들까지 다 도와서 일도 하고 성금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소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는 외부의 원조 덕분에 그때는 공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성당 중을 비롯하여 그때 유품들이 아직도 본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Q : 레지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 신자 2: 지금 우리 공소는 타지에서 오신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온 지 3년 차인데 여기 오게 된 계기는, 귀농하려고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다가 이곳에 공소가 있다고 하길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공소에 레지오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3차 회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바로 레지오에 가입하였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레지오는 현재 120차인데 단원이 9명으로 화령 본당에서 우리 레지오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단결도 잘되고 꾸리아에서 우리 화북 레지오를 일등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이참에 다른 분들도 레지오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레지오가 잘 운영되기가 어려운데 화북공소는 레지오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화북공소는 젊다. 활기가 넘친다. 그들에게 삶을 지탱하는 근본은 신앙이기 때문이다.



영양 본당 석보공소

Q : 석보 공소는 1964년에 설립되었는데요 그 이전의 신앙 생활은 어떠했나요?

할머니1: 우리 공소는 공소가 설립되기 전에도 그전부터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던 신자는 여덟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의 집을 옮겨다니면서 기도하고 예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공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2: 우리 공소가 생기기 전에는 영양성당이나 입암 공소로 미사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 해서 영양성당까지 가기 위해 밥을 싸 들고 밤에 촛불과 호롱불을 들고 산을 넘어 다녔는데 그때 그분들은 이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공소를 처음 지을 때는 집집마다 여름에는 보리쌀, 겨울에는 쌀을 모으는 절미 운동을 해서 공소 짓는데 보탬이었습니다.

공소 회장: 영양까지 15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지금 좋은 길로도 걸어가면 가는 데만 네 시간이 넘어걸립니다. 그때는 성당에 가려면 길도 꼬불하고 산도 험해서 가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때 그분들의 신앙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Q : 석보 공소 가까이에는 머루산 성지가 있네요. 소개해 주세요.

공소 회장: 머루산 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박해를 피해 이곳 포산 마을로 들어와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촌입니다. 3-40명의 신자들이 나무 뿌리와 도토리로 연명하며 화전을 일구고 살았었는데, 밀고자로 인해 많은 신자가 잡혀갔습니다. 포산에서 잡힌 이들 중 20명이 배교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나머지 13명이 대구 감형으로 이송되었는데, 이곳에 일월 곧은정과 노래산에서 잡혀온 20명이 모이게 됩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이들 중 26명이 옥사하시고 7명이 순교하셨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신 분이 세 분, 시복 재판 중인 가경자가 두 분 계십니다. 올해 초에 안동 MBC ‘오래된 약속’이란 프로그램에서 포산 마을과 성지를 취재해 많은 이들도 영양 지역의 성지와 신앙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약속’

Q : 석보 공소만의 특색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젊은 자모: 우리 공소는 첫째 주에는 본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셋째 주는 신부님께서 공소에 오셔서 미사를 하고 둘째, 넷째 주는 공소예절을 합니다. 우리 공소는 3가구의 젊은 부부에게 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안동교구 공소 중에서 어린이 주



일학교를 할 수 있는 공소는 우리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입암공소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영양 본당으로 모이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소 어른들이 주일마다 아이들을 태워 본당까지 데려다주는 즐거움이 참 크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공소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지표가 되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희로애락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반복이 곧 신앙의 여정이다. 석보공소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공소 중의 하나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있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함께 서려 있는 아름다운 공소이다.



공검 본당 성심공소

Q : 제가 30년 전 신학생 때 이곳 성심공소에서 몇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던 길과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네요.

공소회장 : 그렇죠. 지금 이곳에 있는 십자가의 길도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학생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없어졌습니다. 신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은 본당 신부님이 매주 미사에 와주시는 것인데, 참 고맙죠.

어르신 : 옛날에는 학생들이 자주 와서 봉사도 하고 저녁에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농장에 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심공소는 6.25 전쟁 후 한센병 환자들이 구결과 노숙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움을

을 서문동 본당 경도범 엘리시오 신부가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신부는 1956년 상주시 화산리에 두 채의 초가를 구입하여 50~6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살게 했고, 이들이 메리놀회 조셉 에이 신부와 여의사 황영희 딸가리다, 간호원 이 마리아에게 월 1회 진료를 받게 하였다.



1958년 타지의 부랑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 방해하자, 경신부는 환자 중에 지도자를 선정하게 했는데 그가 부산에서 화산리 초가로 옮겨 온 이경숙 사무엘이다. 경신부는 이

들에게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함창본당 왕묵도 레지날도 신부에게 장소 선정과 건축 실무를 부탁했고, 왕신부는 함창과 가까운 공검면 역곡리에 대지 450평을 사들여



2채의 흙벽돌집에 방 7칸, 부엌 7칸을 만들어 7세대 13명을 1959년 6월에 입주시키면서 처음에는 '분도원'이라 했다가 나중에 '성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5년 서문동본당 경신부와 함창본당 왕신부가 식량과 자금을 지원하여 가옥 4채를 지어 3월 31일 정착의 장을 완성하였다.

1966년 8월 서문동본당에 광미카엘 신부가 부임하였다. 그는 본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땅 1만평을 구입, 개간하여 120여 명의 입주자들에게 300평씩 분양하여 경작하게 하고, 성심공소 뒤 계단식 밭 1만평과 주변 논들을 구입해 정착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1969년 안동교구 설립으로 성심공소는 함창본당 관할이 되었고, 2010년 공검 본당으로 이관되었다. 성전에는 지금도 1971년 앙드레 부통 신부가 그린 '기도하는 성모님', '부활하신 예수와 의심하는 성토마스'의 벽화가 남아있다



점촌동 본당 창구공소

Q : 초창기 공소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할머니 1 : 아주 오래전에 우리 친정 집안 아저씨가 여기에 공소회장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 신랑이 그 이전 공소를 세웠는데 건물이 오래되니까 허물어져서 아론 신부님이 다시 고쳐서 지금의 공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아팠을 때 신부님이 우리 집에 삼사년 정도를 계속 다니신 기억이 납니다.

테레사 공소회장 : 우리 공소의 역사를 보면 공소가 처음 생겼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요한이라는 분의 개인 집이었는데 공소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김도겸 아론 신부님이 이 자리에 지금의 공소를 지었는데 다른 공소에서는 보기 힘든 돌로 된 제대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공소 신자들도 십시일반으로 공소를 새로 짓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사순시기 때 십자가의 길 14처가 없어 기도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다자매님의 자제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마련하였습니다.

Q : 공소를 새로 지을 때 기억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소 부장 : 저는 본당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공소부장을 맡아왔는데 그 당시 공소집 역할을 하던 요한씨가 이사가고 그 자리에 공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기초부터 완공할 때까지 공소짓는 일에 관여하였죠. 경비를 절감하려고 성구나 집기 등은 대구에 가서 직접 구입하였고 제대도 대구 성김대건성당에서 주신다고 하여 직접 차를 몰고가서 싣고 왔습니다. 제대 아래에 보면 당시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1 : 우리 동네는 칸나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국악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공소 뒤뜰에서 공연하는데 성당에 다니지 않는 이웃분들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 칸나를 키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도 교우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본당과 문경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할머니 2 :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서 와서 집에 쉬고 있을 때 성모 동산을 꾸미려고 냇가에서 예쁜 돌을 주워다가 지금처럼 꾸며놓았습니다.



Q : 공소에는 기존의 신자들은 연세가 많고 새로운 신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소에서 있었던 전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할머니 1 : 저는 여기 2004년에 왔습니다. 인근에 김용사, 대승사와 같은 유명한 절이 있어서 대부분 주민들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당시 성당을 새로 짓고 하는데도 구경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당에 들어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성당에서 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두번 2년 동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밥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동네에서만 15명쯤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동네분들까지 오시니 한 30명쯤 되었습니다. 혼자하기가 힘들어서 본당에다 이야기를 하니 본당 레지오 팀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2년을 하다가 본당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러 온 사람들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몇 있습니다.

남성신자 1 : 이제는 노령화로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 공소 예절 참석자도 십명 이 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인근에 <살렘 기도공동체> 분들이 이사를 옴으로써 신부님 오실 때 미사에 함께 참여하여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살렘 기도공동체>는 이곳의 환경이 좋아 외지에서 들어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창구공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다니러 온 자녀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런 모습이 오랜 세월 하느님 앞에서 함께 가족으로 지내는 창구공소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울진 본당 서면공소

Q : 우리 공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소 회장: 59년 정도 경기도 안산에서 살던 3형제가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 형제가 저녁에 기도를 드리고 성가를 부를 때 동네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그들의 행동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함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소가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한해에 80명 정도가 세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60년대 초였던 그때는 원주교구 소속이었고 견진성사를 받을 때 지학순 주교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즈음 시골의 인구가 줄고 당시 초등학교 학생수가 43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백명도 안됩니다.

Q : 서면 공소는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공소 건물은 언제 지어진 것인가요?

공소 회장 : 우리 공소는 이 근처를 교우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교우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소를 지었는데, 그 땅이 개인 소유의 땅으로 동네에 반발이 있자 백 미카엘 할아버지가 자기 땅에다 공소를 지어서 2003년 현재의 건물을 짓기 전까지 사용했었습니다. 이상복 신부님이 계실 때 울진 교우들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당시 울진 신자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해서 2003년에 한수원 발전소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준공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 당시 우리 공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기억으로만 더듬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Q : 공소에서 미사와 공소 예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소 회장: 성탄, 부활절 대축일 때는 본당가서 미사드리고 매월 첫째 주는 본당 신부님께서 공소에 오십니다. 2000년도 초기에는 공소에서 월 1회 미사드렸는데 2010년 이후에는 매주 공소 예절을 하고 매월 한번씩 미사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와서 함께 해줍니다.

여자 교우: 지금은 선교사님이 계셔서 공소 예절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공소 교우들이 번갈아 봉사하여 공소 예절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 할머니 세분이 거의 공소를 지키다시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공소의 명맥을 이어오게 된 큰 힘이 되었죠. 저도 귀농해서 처음에는 본당으로 다니다가 지금은 공소에



나오는데, 사실 선교사님의 역할이 참 큼니다.

공소회장: 저희 공소에는 다른 공소에서 보기 힘든 매주 공소에 나오는 학생 신자가 셋이나 있습니다. 중학생인 백미소 마리아와 고등학생인 백미현 안젤라자매와 올해 첫 영성체를 받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공소에 활력이 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공소에서 촛불을 켜고 끄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Q: 서면 공소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네요.

미카엘라 자매: 저는 양수리에 살다가 귀농했습니다. 이곳 공소에 오니 감실이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공소에 성체를 모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늘 상주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공소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할머니들, 쉬다가 돌아온 신자들, 그리고 적은 신자들과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지난해 울진군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아주 적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소도시의 현실과 더 깊은 시골 마을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면공소는 한 가족처럼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모습이 오늘 소박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서면 공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경 본당 외어공소

Q : 외어 공소만이 가진 자랑거리 있나요?

할아버지: 공소가 처음 자리 잡았을 때 주일학교와 교리반이 있었습니다. 초대 공소 회장님이 계실 때에는 신자들 각자가 공소 일을 나누어 맡아서 했는데, 누구는 주일학교를 맡고 누구는 교리반 누구는 다른 일 등등으로 나누어서 하니 공소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할머니: 공소가 있는 우리 동네에는 개신교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신교 교회가 안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리로 이사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전부가 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냉담하고 있어요. 현재는 외인들이 이사오고 해서 신자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전교하고 냉담한 사람들을 다시 나오게 하면 수가 엄청날 겁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고민입니다.

공소회장: 우리 동네가 형성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몹시 가난한 동네였는데, 기차역과 광업소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네는 이미 개신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여기는 새로 생긴 신시가지와 같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으니 개신교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지요.

Q : 앞으로의 공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공소 회장: 처음에는 여기가 전부 들판이었고 돌이 많아서 돌밭이었어요. 박해 시대부터 옹기굴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을 입구에 있는 옹기굴에서부터 공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을 전부해도 십여 호 정도밖에 안 됐



있죠. 가까운 곳의 신유공소가 먼저 생겼는데 그때는 신유공소까지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공소가 필요해서 공소를 짓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공소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신자들이 직접 리어카를 끌고 강에 가서 모래를 싣고와 직접 벽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 벽돌의 강도를 약하게 찍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선 번듯한데 쉽게 바스러지고 비가 오면 무너질 것 같아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기초가 약해서 지금은 증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자 수가 이십여 명 정도 정도인데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못 나오시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뭐라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외어공소 박기완 가브리엘님은 2022년 틈움지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찬미받으소서 퀴즈」란에 3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천 본당 용문공소

Q : 용문 공소의 현재 신자 현황은 어떠한가요?

어르신 1 : 과거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많을 때는 한 80명 되었죠. 지금은 다 도시로 나가고 전에 나오시던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또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신자 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귀농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항상 어느 선은 유지가 되는데 현재 15명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소 식구는 많지 않지만, 코로나19 전에는 항상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 식사도 같이하곤 했는데 이후에는 신자 수가 더 줄어들어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르신 2 : 우리 동네는 유학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500여 호 살고 있고 양반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서 유림의 근본이 강한 곳입니다. 또 신라 시대부터 불교의 역사가 뿌리 깊은 곳이라 이 근처에 큰 절이 세 개나 있는데, 유명한 용문사, 청룡사, 용화사입니다. 최근 들어 개신교 예배당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니 우리 천주교 신자가 잘 늘지 않네요.

어르신 1 : 이곳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래 널리 민간에 유포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 나오는 십승지 중의 한 곳입니다. 옛날 전란이 많고 불안한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 등에도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열 곳의 피난처를 ‘십승지’라고 했는데, 이곳 예천 금당실 용문면이 그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람도 덜 불고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려 할 정도로 지세가 좋은 곳입니다. 2km 되는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때 벌목하여 지금은 8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종황제 때 법무대신 하던 사람이 신자였는데 그분이 이 마을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였고 우리 동네에 천주교를 퍼트렸다고 합니다. 그로 보아 우리 동네 신앙의 뿌리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공소 건물이 아담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르신 1 : 우리 공소는 신자들이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내가 66세인데 어릴 때부터 이 성당을 보고 자랐으니까 저보다 이 성당 건물이 더 오래되었지요. 원래 흙집이었는데 목재 기둥은 겉에 시멘트를 덧발랐을 뿐 건물의 기초와 내부는 초창기 그대로입니다. 지붕도 썩어 내려앉아 여러 번 고쳤고 바닥도 마룻바닥을 다 뜯



어내서 새로 고쳐서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옥 체험하거나 우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성당을 둘러보고는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많이들 사진 찍어 갑니다.

어르신 2 : 원래 성당 앞마당이 넓었었는데, 재작년에 성당 앞의 도로를 넓히면서 우리 성당 부지가 많이 들어가서 성당 앞마당이 좁아졌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성당 앞 펜스도 하고 간이 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화장실을 건축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담이 허물어져도 지금은 증축이나 신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 우리 공소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어르신 2 : 성당 건물 뒤쪽에 지금은 부엌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해서 귀향하여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였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안정되면 떠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저도 5살 무렵에 여기서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불이 나 다 타버려서 이곳을 1년 가까이 임시 거처로 쓰기도 했지요. 그런 식으로 외지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사시다가 안정이 되면 떠나시고 했습니다. 오래 사신 분은 삼 년까지도 사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공소 식구들은 함께 모이는 공간을 내주니 조금 불편했었지만 참 뜻깊고 유서가 있는 부엌입니다.



서문동 본당 낙서공소

Q : 낙서 공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르신 1 : 옛날 6-70년 전에 상주에서 독일신부님이 공소 오셔서 미사를 해주셨어요. 겨울에 오토바이타고 공소에 오셨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신부님 손발이 다 얼어서 파랗게 하고 오셨어요. 그때는 촌에 뭐가 있어야 대접하죠? 한번 오시면 주무시고 가셨는데 이곳에서 불 때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 드릴게 없어서 참 기가막혔었죠. 아무 것도 드릴게 없었으니... 무채 썰어서 국 끓이고 김치만 드렸어요. 그런데도 신부님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6. 25 전쟁 후 제일 어려운 때라 여름 삼복날 일하러 다녀도 점심도 싸가지 못하던 시절이어서 대접하는 저희가 너무 미안했어요.

어르신 2 : 신부님들이 공소 오가면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전 한상덕 신부님이 저희 공소 오실 때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걸려서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도로길에 속도 50km라고 써 있었고 신부님도 50km로 달렸는데 걸렸습니다. 왜그랬냐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독일제 오토바이는 계산을 마일로 하니 50마일로 달리면 8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지 끊겼죠.

전 공소회장님 : 제 나이 20대 때 공소 지을 때 신자들이 모래와 돌을 실어다 날랐습니다. 그 때는 레지도도 한 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 신자들도 많았어요. 처음 공소를 지었을 때는 뒤쪽이 제대였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전례를 했죠. 신자들이 많이 줄어서 제대를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신자들이 27-8명 정도 있었는데 한 분씩 돌아가시고 조금씩 줄기도 했고, 젊은이들이 도시



로 가고 또 공소보다는 본당으로 나가는 분도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반주자가 있어서 성가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주자 김동환 프란치스코 :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7년 전에 귀촌해서 화령 본당 화동 공소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2년 전에 이곳 낙서 공소로 왔습니다. 전에 옛날 올젠으로 반주했었는데 본당에서 키보드를 사 주셔서 지금은 어르신들과 성가 부르면서 미사하고 있습니다.

낙서공소는 1924년 유아 영세를 한 손 다두와 1925년 11월 15일 유아 영세한 정 바오로 등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1956년 상주 성당 경도범 엘리시오 신부가 본당에 부임한 후 상주 잠사주식회사의 창고를 임시로 빌려 공소로 사용했고, 본당에서 전교사 정 도마를 파견하여 교리를 가르쳤다. 1957년 본당의 지원으로 공소를 설립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낙서공소는 현재 15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옥산 본당 청리공소

Q : 올해가 청리공소 설립 70주년입니다. 청리공소를 소개해주세요.



이성희 마리아 전 공소회장 : 저는 10년 정도 공소 회장직을 했습니다. 앞선 회장님들이 열정적으로 해주셨기에 제가 회장 할 때는 6~70명가량 되어 성당 뒤에까지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 40명 정도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교우들이 나오시면 그래도 5~60명은 됩니다. 공소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교우님들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마당이 있는 성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곡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교우가 불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저희가 본당도 되었으면 좋겠다.

전용호 스테파노 공소회장 : 저희 청리공소에 레지오 한 팀이 더 생겨서 2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나중에 본당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목회 결성했습니다. 저희 공소는 평일 수요일과 주일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공소 출신 신부님과 수녀님도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자 구성원은 40대에서 90대까지 골고루고 어른과 어린이 복사도 있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계속 공소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본당도 준비하고 있죠. 이 지역에 교구 신앙 고백비가 있어서 저희는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최영희 아나다시아 : 옛날에는 상주로 다녔는데 성탄 때 걸어갔었죠. 본당에서 테리러 오기도 했어요.

어르신 2 : 전에 공소 사택에 사셨던 분이 정시에 종을 치셨는데 틀린 적 없이 항상 정시에 치셨어요.



효임골롬바 선교사 :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온 지가 4년 정도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해주신 옛날얘기 해드릴게요. 1950~60년대 가난했던 시절 옛날 성전이 작아서 지금의 성전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공소 신자분의 친구였던 동네 꼬마들이 성전 짓는 자재인 줄도 모르고 철근을 훔쳐다가 엇가락하고 바꾸어 먹었답니다. 나중에 커서 성당을 지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씩 종을 쳤었는데 매일 치던 종소리가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종소리를 듣게 되니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며 종소리를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70이 넘는 어른이 되었고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당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십니다.

삼괴리에 신앙고백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00년 이전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 웅기 장사를 하던 상주 본당 교우 박 세실리아가 청리로 이사를 왔고, 그는 매일 웅기를 팔면서 전교하었는데 점점 신자들이 늘어나서 마을 회관을 빌려 예절을 보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공소가 되었다. 지금의 공소 건물은 1964년 11월에 준공되었다. 1967년에 그린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3점의 벽화가 있다.



남성동 본당 상촌공소

Q : 상촌 공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르신 1 : 제가 이 공소에 다닌 지 벌써 55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소 역사가 57년이니 거의 초창기부터 다니고 있네요. 전에는 공소가 활발했습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도 7~8년 전까지 이 곳 공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레지오 ‘구세주의 어머니’ 뿌레시디움도 30년 동안 끝까지 남아 있었던 2~3분이 1,500차까지 했었는데 4년 전부터 쉬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40명 정도 있었을 때는 사순시기 성삼일 전례도 공소에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소의 산증인이셨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 본당으로 갑니다. 오랜 시간동안 공소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2 :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하지 못했던 4개 공소 야외미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낙동, 상촌, 신상, 용포 공소 간의 모임도 활발했었죠. 이번에 본당 신자분들도 봉사해주러 오셔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당 레지오 단원 : 저는 남성동 본당의 ‘하늘의 문’ 뿌레시디움 단원입니다. 저는 상촌공소에 오면 역동성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해지심으로 공소가 점점 쇠락해지는 것 같지만, 이 곳 상촌공소는 계속해서 새 신자가 생깁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벌써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자매님 혼자 열심히 하셨는데 그 짝교우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오신 14명 중에서 10명, 곧 5쌍이 부부입니다. 92세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도, 몸이 불편해도 꼭 함께 나오십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제가 상촌공소를 다녀가면 새로운 활력을 갖고 갑니다. 공소의 힘이 대단합니다.



상촌 공소는 1950년 10월부터 낙동면 냇가에 대형 천막을 치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주일 참례를 시작하였다. 1959년 낙동면 내곡리 산 44-1번지 90평에 약 12평 정도의 흙벽돌 담에 초가로 강당만 건립하여 공소로 사용했다. 6.25 전란 이후 공핍하던 때 가톨릭 복지회가 지원하던 구호품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성당에 나오다가 구호품 지급이 중단되자 냉담자가 속출하여 신자수가 줄어들어 임시 공소를 폐쇄하였다. 그 후 공소를 상촌으로 옮겨 신자들의 집에서 주일 참례를 하다가 1967년 8월에 준공식을 했는데 이때 신자가 40명 정도였다. 공소 벽에는 1960년대 앙드레 부통 신부가 그린 '한국판 아기 예수 탄생'과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벽화가 남아 있다. 2024년 현재 15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이지만 활발한 전교 활동으로 공소에 활력이 넘친다.



함창 본당 신흥공소

Q : 공소 초기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할머니 1 : 과거에 우리 공소에 신학생들이 자주 봉사활동 왔습니다. 새참으로 삶은 국수 한 광주리와 막걸리 한 말을 가지고 갔는데 들에서 일하다 드시니 막걸리 한 말이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잡초를 뽑았다고 가져온 자루를 보니 잡초보다 나락이 더 많이 들어 있었어요.

Q : 가톨릭 농민회 활동은 어떤가요?

할아버지 2 : 얼마 전까지 가톨릭농민회 신흥 분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안동교구 초창기부터 해오던 생명의 공동체가 운영되었는데, 그것과 합해지는데 과정에서 가톨릭 농민회가 없어지고 지금은 생명공동체가 솔터 분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신자 수가 줄어드니 힘에 부쳐서 가톨릭농민회 사업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사에는 전에 최고 80명에서 지금은 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Q : 공소의 자랑거리가 많죠?

할머니 2 : 레지오가 네 팀이나 되었었죠. 그런데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 서기나 단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두 팀이 역지로 버텨가는 중입니다.

할아버지 3 : 1960년도에 안동교구에서 최초로 소년 뽀레시디움이 창설되었습니다. 단원은 함창 본당 3명, 우리 공소 4명 해서 7명이었는데 저도 그때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할아버지 1 : 전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모성월에는 매일 묵주 기도를 사순 시기에는 매일 십자가의 길을 기도합니다. 또 공소 신자들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미사곡을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3 : 지금은 돌아가신 노상단이라는 동정녀 신자 한 분이 70년도에 마을 사람에게 집집마다 다니며 손을 잡고 성가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



들에게 성가를 가르쳤는데 그때 우리 공소의 신자들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신흥공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세시키신 분이 130여 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가 기도를 통해 선교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3 : 공소 지으면서 제대를 준비할 때 당시 정호경 신부님께서 공사장에서 파낸 너른 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돌을 반으로 잘라서 반쪽은 함창성당 묘지의 제대로 쓰고 나머지 반쪽은 우리 공소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제대 뒤 십자가도 당시 정 신부님께서 직접 제작하시며 한글로 ‘죄명-임금 예수라’고 쓰셨습니다.

함창본당 신흥(새터)공소는 1785년 을사추조 적발사건 때 박해를 피해 문경 산속에서 살던 신자들이 1873년 병인박해가 종식되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면서 생긴 공소 중의 하나이다. 새터공소는 1882년 말부터 경상도 지방을 순회하던 김보록 신부가 와서 성사를 집전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함창본당 관할이 되었다. 지금의 공소는 1992년 10월에 축성식을 하였고 현재 30여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은 본당 성유공소

Q: 공소 미사 전에 종을 치네요

전 공소회장 : 본당 종소리가 우리 공소까지 안 들립니다. 종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성유공소에서 하느님의 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종소리를 지켜 왔습니다.

여신자 1. : 저는 남편이 착실한 신자여서 저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가 많아서 공소 생활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 신자 수가 네 명까지 줄어들어 공소문을 닫으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사람들 더 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타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 공소가 부활하여 요새는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소회장 : 저는 오랫동안 함께하던 풍물 동아리 친구들과 대구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가정 중에 절반 정도 되는 12명이 신자인데, 그분들 중에 5명이 오늘 미사에 나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니 공소 문을 닫을 상황에서 계속 공소가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저희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소는 매달 첫째 주 공소예절을 마치면 집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식구'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 말 그대로 우리 공소 사람들은 서로 식구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자 3 : 저는 이곳 고향에 온 지가 삼 년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을 너무 잘 모시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신자 4. :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이 좋아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 이곳에 정착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빨리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신자 5 : 우리 공소는 신부님까지 배출한 공소입니다.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이 우리 공소에서 나신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바로 내 조카입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절에 다녔는데 마을 동생의 권유로 그날로 공소에 나와 세례받고 성당에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성유공소의 역사는 1957년경 농암 읍수에 살던 신상철 아오스딩 형제가 오재구의 사랑방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되었다. 1959년경 공소부지를 매입하고 1961년 공소 건물을 신축 봉헌하였다. 장기택 야누아리오 형제는 40여 년 가까이 공소회장직을 맡아 공소를 지켜왔고 오랜 시간 공소 신자들과 함께 활발한 농민회 활동도 하였고, 지금은 귀촌해 온 변요한 보스코 형제에게 새 회장직을 맡겼다.



문경 본당 정리공소

Q : 정리공소를 소개해 주세요.

어르신 1 : 저희 정리공소는 63년도 외국 신부님이 계실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리 2리에 신자들이 많아서 이 건물을 신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고 나서도 손이 많이 가서 비도 새고 해서 고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 내외분이 공소가 지금처럼 유지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발목을 다칠까 봐 직접 계단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죠.

어르신 2 : 문경 본당에 공소가 네 개인데 그 중에서도 신자 수도 적고 모든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공소가 저희 공소인데 본당 신부님께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힘도 많이 실어 주십니다. 공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본당이나 다른 많은 신자들이 우리 공소를 위해 애쓰시고 도와주시니까 그게 늘 고맙습니다.

어르신 3 : 아주 오래전 제가 이곳으로 시집왔을 때 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신자셨기에 저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사짓는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농사짓는다고 본당에 갈 시간도 없었는데 가까이에 그나마 공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공소가 신자 수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소입니다. 우리 공소를 없애고 본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공소에 저 혼자 남거나 둘만 있어도 공소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르신 4 : 저희 공소는 전에는 신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즈음 와서 신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신자 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 수가 급속도로 줄었죠. 나이 많은 분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해서 적었을 때는 신자가 세 사람이 남은 적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소가 없어질 뻔도 했



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공소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5 : 저는 대구 죽전 성당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당에서 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2002년에 세례는 받았는데 젊은 사람 신자가 생겼다고 성당에서 많은 일을 시켜 하다 보니 힘들어서 지금은 냉담 중입니다.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다만 객지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성당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나 아이들도 다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정리공소는 문경과 가은의 중간 지점이다. 권영철 베드로가 함창에서 세례를 받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신현공소를 다녔다. 열심히 전교하던 중 부친이 작고하였고 이때 가은 본당 지인수 에르네스트 신부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 더욱 열심히 전교하여 신현공소에서 분가하여 1963년에 공소를 설립하고 자신의 집에서 공소예절과 미사를 드렸다. 1967년 대지를 구입, 건축을 시작하여 1968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10명 정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영양 본당 청기공소

Q : 청기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1 : 저는 지금 공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영양으로 귀농해서 귀농하자마자 공소에 찾아와서 우리 신자분들 만나 뵙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어르신 신자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자매님들은 거의 다 계십니다. 우리 공소는 현재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 다른 공소에 비해 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귀농했을 때 아마 우리 공소 어르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쉽게 정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공소 신자분들의 도움을 무지무지 많이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기적처럼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2 : 우리 공소의 구성을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서 나서 결혼하고 쪽 생활해 오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다른 귀농하신 분들에 비해 지금까지 정착도 잘하시고, 또 모든 면에 모범적이어서 우리 공소 신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귀농하신 젊은 신자분들 덕분에 화합도 더 잘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잘 견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소가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3 : 저는 젊은 시절에는 공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는데 지금은 성경 필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하는데 성경 필사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죽는 날 까지 성경을 계속 필사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1 : 우리 공소는 화합이 잘됩니다. 특히 기존 신자분들이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새로 오신 분들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한 마음으로 공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공소는 50~60대도 많아 그들을 청년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화합이 잘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공소 예절 마치고 신자들이 모여 물고기도 잡아 같이 나눠 드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고 공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4 : 우리 동네에 1940년대에 장로교가 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공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쯤 신자 대학생들 몇이 모여서 동네 정자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공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동네 정자에서 공소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집을 사서 공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천주교보다 장로교회가 한 20년 정도 먼저 들어왔지만 지금 교세를 보면 신자 수나 화합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봐도 낫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공소가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공소에서 봉사하신 회장님들과 봉사하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 공소가 금방 없어질 것 같다가도 또 살아나고 합니다. 오늘 미사에 나오신 분들은 15명 정도이지만 전체 신자 수는 27명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동네의 다른 분들 보다 더 평이 좋은 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소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령 본당 모동공소

Q : 모동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우 1 : 우리 모동 공소의 설립은 1961년으로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성당에 다닌 것은 1970년도 초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소가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 더 지난 때였는데 그 당시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신부님과 두 분의 외국인 신부님들이 계셨다는데, 저는 도요한 신부님이 계실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화재로 한옥 건물이 소멸되고 다시 지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계시던 분들은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

교우 2 : 옛날에는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행사를 위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신자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음식도 나눠 먹으며 함께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성당도 새로 짓게 되어 좋았지요. 지금은 신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3 : 우리 동네의 특징은 옛날부터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옛날에 계시던 신부님들과 외국 신부님들이 미사주가 필요하니까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 분들은 물 대신 음료수로 포도주 와인을 드시니까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도가 유명해졌습니다.

Q : 우리 공소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소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이곳에 오기 전 코로나 때문에 교리가 중단되었는데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라 처음 귀농했을 때 시골 생활과 농사에 서툴고, 특히 사투리가 너무 낯설어 못 알아들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당에 안 다녔으면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공소 신자분들께서 많이 알



려주시고 도와주셨지요. 저희를 가족 대하듯 진짜 가족처럼 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교우 5 : 귀농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래 있던 분들과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 분들 모두 다 농업에 종사하셔서 집들이 일부는 모여 있지만 우리 사는 동네만 해도 띄엄띄엄 있어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성당에 다니다 보니 교우들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고, 성당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우리 동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쉽게 인정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공소에서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우 6 :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내려온 지 10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좋은 교우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공소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셨지만 한 가족 전체를 제가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자매님 한 분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소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우리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7 : 지역 특성으로 포도의 주산지가 되어 많은 분이 귀농하면서 우리 공소에도 젊은 분들이 많아져 활기가 생겼습니다. 30년여 전에 저 담장을 500만 원 들여 쌓았는데 몇 년씩 마을 사람들이 적금을 들어 공소 신자들의 힘으로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나의 집’과 성모 동산은 본당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소 신자들은 이곳을 ‘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의 집’을 지을 때 젊은 40여 명의 분도 회원과 작업을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가 힘을 합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서문동 본당 남적공소

Q : 남적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우 1 : 남적 공소에서 자랑할 것은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다른 공소에 비하면 월등하게 크고 오래된 십자가입니다. 또 종이 67kg인데 이 종을 달 때는 저분 시아버지가 지게로 져서, 올라가 단 겁니다. 공소가 지금 모습을 갖추기까지 신자들의 손이 직접 안 간 데가 없습니다. 67년도에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큰 게 있었는데 다른 성당에 있는 것을 우리 공소로 옮겼습니다. 차에 직접 신고 오는데 참 무거웠습니다. 저 혼자서 리어카로 옮겨 역지로 세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우리 공소 담이 흙담인데 무너져 있어서 신자 아닌 동네 아이들이 넘어 다니기도 했는데 오래 계시던 신부님들이 담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신자들이 밀가루 주는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당이 꽉 차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 수가 점점 줄어 제가 공소 회장을 오래 하고 있는데 회장을 바꾸려고 물색을 해 놓아도 도시로 이사 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봉사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교우 2 : 아주 오래전 제가 애도 낳기 전, 젊을 때부터 우리 큰집에 시동생이 성당에 다녔습니다. 우리 공소를 짓기 전부터 큰집 시동생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보고도 성당 나오라고 해서 20살쯤이었을 때부터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93살인데 제가 성당에 다니고 나서 얼마 안가서 공소가 생겼습니다.

교우 3 : 박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외서의 본가에 사시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전교 회장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 교구가 대구 교구에서 분가되기 전에 전교 회장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 젊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삼 일만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우가 자꾸 없어지니까. 상주 본당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동네에

스물하나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여기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부터 어른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노인네 분들과 같이 본당으로 가자고 하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총무를 하면서 이곳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공소가 발전도 안 되고 신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갈수록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지네요. 그러나 성당을 칠하는 것도 내 손으로 색깔을 내가지고 칠하고, 지붕도 우리 아저씨 있을 때부터 직접하고 그랬는데도 발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희망이 있겠지요.

Q: 공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교우 4: 저는 시내 살지만 오랜 시간 우리 공소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공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공소에도 몇몇 분은 시내로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인원이 한 10명 정도라도 되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좀 안타깝워요. 딱히 불편한 점을 들라면 영성체를 자주 못 하는 게 아쉽습니다.

교우 5: 여기 계신 형님은 우리 공소에 진짜 꼭 필요한 사람 같아요. 신부님이 오신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두부를 직접 만들고 하루 종일 직접 쭉을 뜯어서 떡을 해서 공소 사람들을 다 먹여요. 본당에 다니다 공소 온 지는 오래 안 됐는데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시내 본당에 가면 미사 참여하고 그냥 돌아오면 끝인데 공소에서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굴 보면서 서로 기분 좋은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화목해서 좋더라고요. 공소 생활을 화목하게 하는데 여기 형님이 한 몫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사 정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박수도 한 번 제대로 못 쳐 드렸습니다.



다인 본당 상광공소

Q : 우리 공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00년 전쯤 평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양반들이 다 빼앗아 갔는데 이를 본 외국 선교사들이 막아주어서 성당에 다니면 농사지은 걸 빼앗아 가지를 았답니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당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2 : 1988년도 무렵에 이 공소가 윗마을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공소 출신 신부님 방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옆에 방을 조그맣게 지어 공소예절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구호물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교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동네에 공소를 하나 새로 설립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우들이 줄어드니까 그건 폐쇄되고 상광공소로 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는데 교구 지원금과 성금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1989년에 공소 신축 공사를 마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우 3 : 제가 올 해 88세로 우리 공소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공소는 여러 본당을 거쳐왔습니다. 처음에 퇴강 성당, 두 번째 의성 성당, 세 번째 군위 성당, 네 번째는 예천 성당입니다. 예천까지 육십 리인데 걸어 다녔지요. 지금 안동 주교좌성당 축성식을 할 때 우리 공소에서 떡을 해가지고 가서 축하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이 너무 멀어 신부님이 오시면 보통 2박 3일 머물거나 1박 2일은 기본으로 계시다 가셨지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청 엄격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1년 12달 금요일은 고기도 안 먹었지요.

Q : 우리 공소의 장점이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공소에서 성직자 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공소에는 신부님 수녀님이 네 분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아마도 공소의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우 1 : 처음 시집와서 이 동네에 사는데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교우분들이 하나같이 다정다감하고 친절을 베풀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늘 마음이 성당으로 끌렸지요. 그래서 저도 영세 받고 우리 아저씨도 영세 받고 또 숙모님과 시어머니도 받게 되면서 온 가족이 다함께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2 : 저는 8년 전에 이 동네로 귀촌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세례받고 냉담한 지 30년 쯤 되었지요. 위치도 떨어져 있어서 동네 분들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성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귀촌 후 서먹했던 것들이 교우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한 주민으로 어울리게 되어 저로서는 제일 큰 보람이고 많은 것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촌동 본당 산복공소

Q : 산복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저는 2019년 이곳으로 왔습니다. 유아 영세를 받았는데 계속 성당을 못 다녔어요.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마을로 귀향하면서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공소까지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공소 자랑거리는 많습니다. 공소에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귀한 분들이죠. 공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마다 사진을 찍고 원고를 작성해서 공소 알림지를 매월 만들어 배부해주시는 분의 수고로움으로 저희는 공소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형제님은 바쁜 가운데에도 틈나는 대로 공소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깔고 약도 치고 페인트 작업도하며 공소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봉고차를 계속 운전하시며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직분을 맡으신 여러 신자분들의 수고도 말로 할 수 없지요. 자매님들은 늘 식사 준비와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 개개인이 이런저런 불평함 없이 묵묵하게 해주시기에 우리 공소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 2 : 우리 공소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6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공소가 아니라 본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행복한 고민도 했었지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하느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25명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상주하셨을 때는 거동이 불편해서 공소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선교사님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본인 차에 태워 성당에 모셔드렸었지요. 그때 제가 공소 부장을 하면서 본당 신부님께 선교사님이 차량봉사까지 서슴없이 하시니 기쁨같이라도 지원해주십사 청하기도 했었지요. 그만큼 아주 열심히하고 활기가 넘친 공소였습니다.

Q : 공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3 :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 신자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60명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숫자도 줄어들다보니 제 마음이 좀 허전해지더라구요. 제가 공소 승합차를 몰고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당에서만 운행을 하다가 공소 운행을 하였는데 제가 모시고 다녔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점점 공소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4 : 우리 공소는 196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 진갑이 다 지난 건물인데 여름은 무더운 여름이라서, 겨울은 추운 겨울이라서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벽체라든지 건물 자체가 무척 낡았습니다. 실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손볼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노력 봉사로 사과즙을 내어 팔아도 보고, 주일마다 십사일반으로 모금을 하여 800만원 정도를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소 건물을 수리해서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경 본당 신현공소

Q : 신현공소의 기억나는 일들이나 자랑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우리 공소는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이곳에 오신 신부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미사와 전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소 건축물을 보수하고 가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십사 처도 깔끔하게 만드셨고 바닥도 정말 깨끗합니다. 아마 우리 공소 같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소는 없을 겁니다

교우 2 : 이 건물이 예전에 마성 면사무소 건물이었는데 옛날에 독일 신부님이 계실 때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다른 공소에 비해 기본적으로 건물이 깔끔한 편입니다. 과거에는 신자 수가 많았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점점 줄어 15명 정도 나오시는데 공소를 잘 지키고 다듬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성당을 아마 끝까지 잘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Q : 신현공소에도 귀농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자로서 어떻게 융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우 2 : 저는 2015년도에 귀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바쁘게 살면서 성당에 가는 것도 잊은체 2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주민들과 부대끼는 일들이 생겨서 여기를 떠나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을 때 성당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과 상담을 하고 성사도 보고 하면서 문경성당에 다니다가 신부님이 공소 식구면 공소로 가라고 하셔서 신현공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공소라는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참 따뜻하게 받아주시고요.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저는 사랑만 받고 지금은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 같은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아침에 일찍 지팡이 짚고 오셔서 폴도 뽑으시며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인데 저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른 새벽 미사에 오시는 것을 보면 신



양의 뿌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을 하고 공소에 나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깊은 신앙심입니다.

교우 3 : 이 마을의 40,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공소가 어렸을 때 놀이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소가 이 마을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성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을 중앙은 정신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에 우리 공소는 이 마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우 4 : 사실 예전에는 신자 수가 많아 레지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15명 정도여서 둘로 나누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아 단원이 7명 정도입니다. 단원 중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현재 레지오는 2070차입니다.

Q : 오늘은 특별히 서울 교구에서 교우들이 신현 공소로 봉사를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현 공소에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서울 신자 : 저희는 원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 성모승천성당 성가대를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데요. 성당 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성가대 없는 성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처럼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성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현 공소가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여러장 찍어 담았습니다. 건물을 보면 그 건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도 함께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많은 기쁨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성동 본당 낙동공소

Q : 우리 공소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기억나는 이야기들이나 지금의 공소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자 수가 4~5명 정도입니다. 신자가 많았을 때는 본당에서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셨는데 시골에 대접할 것도 없고 해서 호박잎 찌고 고추 같은 것들로 이것저것 소박하게 만들어 대접을 하면 신부님들께서 기쁘게 드셨습니다. 그때는 매 번 식사도 함께 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참 좋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오늘은 뭐 맛있는거 하는지 물으며 참 정겨웠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었습시다. 우리 공소는 1959년도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몇 몇 분이 모여 어느 한 가정에서 예절을 바치다가 5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2 : 저는 성당에 늦은 나이에 발을 들여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성당에 와서 같이 웃고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도문을 잘 외우지는 못해도 공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우 3 : 우리 공소가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봉고차를 마련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 성지순례도 가고 야유회도 다녔습니다. 주일에 예절을 마친 후 매번 강에 솔을 가지고 가서 하다못해 닭이라도 삶아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설날이 되면 윷놀이를 하고 작은 선물도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땐 신자들이 많아서 공소 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우 4 : 우리 공소는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한 4, 5년 전부터 요양원에 가시더니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은 신자 수가 급격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소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 5 : 저는 우리 공소에 온 지 17년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공소 생활이 처음인데다 환경이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미운정 고운정으로 우리 공소 식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6 : 저는 본당 레지오 단원으로 매 주 공소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본당 레지오 Pr. 단원들은 본당 소속인 4개 공소에 매주 방문하여 공소 예절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곳 낙동공소에 오는데 최근에 와서 신자 수가 갑자기 줄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픈 이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자식 따라서 동네를 떠난 사람도 있다 보니 한 20명 되던 신자가 지금은 다섯 명 정도입니다. 귀농자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화령 본당 모서공소

Q : 모서공소는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 이곳에 와서 정착하실 때 어떠셨나요?

교우 1 : 저는 이곳에 온지 14년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온 건 아니고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삶에 활력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모서공소는 참 고맙고 제 인생의 전환점을 준 소중한 곳입니다.

교우 2 : 저는 14년 전에 귀농을 했습니다. 사실 시골의 텃세는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당때문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보호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당에 오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해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우 분들이 없었다면 시골에 내려와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교우 3 : 부모님들은 비신자셨고 어렸을 때 자매들끼리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대전에 있는 작은 성당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결혼할 때 남편이 신자여서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날 남편이 모서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고생도 좀 했습니다만 공소 분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가족같이 보살펴주고 잘 나누어주셔서 이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 : 공소의 지난 이야기들 중 기억나는 일이나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 우리 공소는 196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공소를 지을 당시 외국 신부님이 계셨는데 신자분 집에서 미사와 교리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해서 공소를 지을 때 독일에서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재나 돈이 드는 것은 지원을 받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교우들이 힘을 모아 벽돌을 만들어가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릴적 제 기억에 조부모님이 교리문답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세례받는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신부님께서서는 다음번에 더 교리를 공부해서 세례를 받도록 했지요.



정말 그 시절에는 호롱불로 교리를 익혔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례자가 60~7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공소가 거의 소멸 될 위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임 회장님들과 남은 교우들이 끝까지 공소를 지키며 신앙을 이어가 주셔서 7.8명 정도였던 신자들이 다시 5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평일 미사에 보통 20명 이상 참석하고 전원이 모이면 4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공소는 다른 공소에 비해 젊은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도 잘 이어가는 공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우 5 :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레지오를 한 10년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레지오를 못 했던 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레지오를 안 하니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6년 전에 본당 신부님이 레지오를 새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항상 성모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우 6 : 저는 세례 받은 지 15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을 찾아주셨던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을 보고 정말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당에 차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12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왕 성당에 가는 길이니 다른 분들을 좀 모시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량봉사를 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차량봉사가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 술 한잔할 일이 있어도 ‘아, 내가 성당에 안 가면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냉담도 못하고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운이 절로 납니다.